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겸주간 이 정 희
편집장 주 재 영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 영 수

570호 1991년 8월27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창구단일화 뚫고 첫 남북학생회담 성사

정부, 통일운동 주도권 장악위한 겉치레로 허가서 발부

방북취재, 부문운동계열 자주교류 투쟁의 토대 마련

지난 12일(월) 판문점에서 가진 방북취재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남북한 대표가 47년만에 첫만남의 감격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지난 12일(월) 해방 이후 47년만에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이 개최되었다.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서대기련)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오던 방북취재를 위한 남북한 주체 1차 실무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서대기련은 조국통일을 위한 7백여 언론전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서 방북취재를 제기하였다.

그간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북한의 실상을 직접 취재하여 정확히 알려냄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민족의 이질감을 해소하며, 특히 방북취재계획을 범민족대회 기간에 맞추어 범민족대회를 전 국민적으로 부각시켜 자주교류의 구체적 실현과 자유왕래를 바탕으로 하여 전민족적 통일방안의 합의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때문에 서대기련의 방북취재투쟁은 범민련을 위시한 통일주도 세력인 남북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교류의사 내용, 특히 전대협에서 제기한 1천개 학과 교류투쟁, 편지교환투쟁 등과 맥을 같이하는 자주교류투쟁의 일환으로 주체조직의 자발적인 교류촉진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속에서 서대기련의 방북취재투쟁은 통일원에 방북신청서를 내면서 전대협, 범민련과의 내용적인 강한 연대속에서 합법공간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전술하에 진행되었다. 이는 각계·각층의 자주교류투쟁에 있어 조직의 수준이나 위치에 근거한 합법, 비합법, 반합법의 유연한 전술 활용이 요구되어졌기 때문이다.

서대기련은 7월16일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를 제출하고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정부측은 처음부터 판문점을 통한 직접 접촉을 불허하고, 제3국을 통한 접촉만을 허가하였으면서도 방북취재공기단 준비위원장 오상훈(한대신문사 전편집장)군의 중국주재북한대사관을 통한 접촉마저 보안요원을 통해 막음으로해써 제3국을 통한 접촉마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대기련은 범민련, 전대협을 통한 대북한 접촉으로 12일 판문점에서 방북취재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그속에서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팩스 전문을 베를린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받았다.

이에 정부는 그간 북측이 창구단일화 논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청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초청장을 준다는 확답만 있어도 실무회담은 물론 언제든지 방북을 허가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12일 실무회담을 불허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12일 판문점에서 가진 1차 실무회담은 방북취재계획과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취재계획은 북측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해결되었으나, 방북일정에 있어서 범민족대회 취재를 위해 13일을 제안하는 북측과 광복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15일을 제안한 방북취재단 사이에 이견이 있어 북측에서 14일을 방북일로 하자는 수정안을 냄으로써 13일 2차 실무회담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조작을 통하여 「서대기련의 교류차원의 순수한 방북취재를 북한이 범민족대회와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2차 실무회담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사실상 13일과 15일의 방북일에 있어 내용상 별차이가 없음에도 정부와 제도언론은 북측이 남북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북한에 돌리면서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의 허구성과 정권유지용 반통일 정책을 은폐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살펴 볼때 서대기련의 방북취재는 단위조직사업으로서 준비와 대정부접촉 등에서 몇가지 오류점들을 안고 있었다.

첫째 북한의 주체들과 협의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대정부접촉을 시도한 점이다. 둘째, 방북취재라는 성과물에 집착한 나머지 형식면에서의 합법화 의도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범민련, 전대협과의 내용상 깊은 연대를 전지했음에도 일반시민, 학우들에게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를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남긴 점이다.

하지만 이번 서대기련의 방북취재투쟁은 진행과정상 이러한 오류를 겪으면서도 민간인 자주교류 투쟁의 첫 효모를 트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밴루버 선언으로 통일운동의 정부주도의 활로를 틀고자 했던 정부는 첫 민간인 교류이며, 운동권 대학신문기자라는 조건을 고루 갖춘 서대기련의 방북취재를 통해 창구단일화 논리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때문에 서대기련이 북한주민 접촉 신청서를 제출한지 3일만에 허가서를 발부해주는 예전에 없던 기동성을 발휘하는가 하면, 정부가 원칙적으로 거부한 범민련 전대협과의 연대 그리고 방북취재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범민족대회 취재등에 관해서도 한쪽눈을 감고 한쪽 눈만 뜬채 고도의 정치적 계산속에서 허가를 한 것이다.

노동권의 밴루버 선언과 각종 언론플레이속에서, 서대기련의 방북취재투쟁을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정부를 통해서만 북한과 자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창구단일화 논리의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2차 실무회담의 불허로 정부주도의 자주교류운동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대기련의 방북취재투쟁은 정부의 반통일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현정부와 합법공간만을 이용한 자주적 교류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즉 일정부분 합법공간을 이용해 내면서 반통일 세력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투쟁속에서 자주적 교류 투쟁을 전행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또한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될 자주교류투쟁에 있어 하나의 지표로서 제기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서대기련의 방북취재에서 나타났듯이 현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해 내고 전대협·범민련과의 강한 연대의 틀을 형식면에서와 함께 내용면에서도 강고히 하여 투쟁속에서 쟁취하는 자주교류 투쟁의 발판을 이루어낸 것이다.

서대기련의 방북취재투쟁의 지위와 역할은 바로 이러한 자주교류 투쟁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서대기련 방북취재 공기단: 본보 김인숙 기자〉

사설

새로운 출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강을 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아래서 늘어났던 전선줄이 이제 다시 본래의 탄력을 되찾아가듯 캠퍼스도 그간의 힘없이 처진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

방학동안의 생활을 정리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학교에 나와 서로를 맞이하는 마당에 지나간 일이,또는 잊히진일이 새로운 출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라도 잊혀져야 할것이 있는가 하면 잊어서는 않될것도 있는 것이다. 개강과 함께 씰렁했던 강의실은 방중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기들의 훈훈한 이야기로,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로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강의실에 같이 강의를 들어야 할 우리의 친구, 선배가 없다면 어떠하겠는가. 그것이 더욱이 군대나 휴학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라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6월3일에 있었던 정총리서리에 대한 항의시위사건이 있은 이후 우리와 같이 수업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지내왔던 16명의 학우가 수배되고, 8명의 학우는 얼친채 닫친것으로 학생에게 사형과도 같은 제적을 당하였다. 방학기간동안 10명이 학우가 붙잡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나머지 6명은 아직도 수배를 피해 쫓기고 있다.

6·3사건이 본교에 끼친 영향이야 차치하고라도 지난시기 강경대열사 이후 수세에 몰려있던 정부가 일시에 돌파구를 찾는, 그로 인하여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거세게 몰아쳤고 광역선거에서도 결코 나쁜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굳이 지나간 일을 또다시 거론하려는 것은 지난간 일, 잊혀져야 할 일이 기에는 아직껏 그날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그로 인한 영향이 개강과 함께 학우들에게 직접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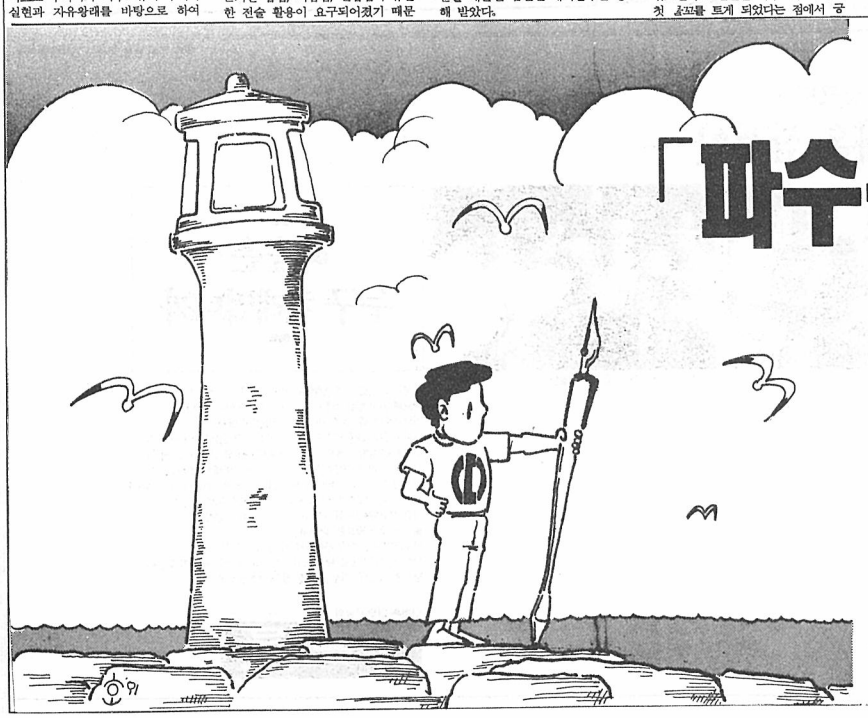
현재 단한사람도 재판과정을 통하여 범법행위의 진위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제적을 내린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와함께 6.3사건이 있은 이후 너무나 신속하게 제적을 결정하여 비린 대학당국의 처사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정총리의 위신이 중요하다면 개인의 장래 또한 더욱중요한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강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차게 매진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의 곁을 떠나 있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동료, 선배 그리고 후배를 우리의 곁으로 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수배와 제적 조치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배와 제적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우리의 곁으로 들아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지 면 안 내

지방교육자치 ····· 4면
6·30이후 학운탄압의 변화과정 ····· 5면
91 범민족대회 평가 ····· 6면
사진특집-91 범민족대회 ····· 7면
통일전망에 대한 의식구조 설문조사 ····· 8면
학원안정화 대책 ····· 9면
하반기 통일운동의 과제 ····· 10면
91 범민족대회 취재기사 ····· 11면



『자유언론·정론직필』의

「파수꾼」을 찾습니다.

대학신문의 기자는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만3천 외대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신문을 만드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얼개라도 모자랄만큼 뛰어다니고 밤샘하여 기사쓰는,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며 이웃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기자.

바로 지금, 외대학보에서는 제4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주입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잃어가는 목소리를 되찾고, 드러나는 모순앞에 부서져가는 자신을 우뚝 세울 91학번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다시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안일한 생각과 숱한 망설임으로 아깝게 놓치고 마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자유언론·정론직필』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결단으로 함께 만납시다.

*자세한 내용은 3면 수습기자 모집공고 참조

외 대 학 보

흡산의 소리

애국외대 학우들께 드리는 인사

—6·3수배자 김경하군의 편지글

숨을 턱턱 가로막는 여름날의 폭염속에서 시원한 한줄기 바람을 기다리듯이 학우들의 밝은 웃음을 그리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5대 통일단결총학생회 총부학생회장 김경하입니다. 이제 교문을 들어서며 힘찬 발걸음과 활기찬 웃음으로 이문법을 깨우는 학우들께 직접 만나 2학기의 시작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죄송함을 앞세우고 인사드립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당당하고 활기찬 애국외대 7천학우들의 환한 모습은 그 누가 확인시켜주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80여일이라는 시간과 우리의 터전 이문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공간의 벽을 극복하고 저 역시도 자랑스런 애국외대인의 자부심을 늘 가슴에 새기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2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애국외대인의 모습은 5월투쟁에서, 6월3일의 자랑스러운 투쟁에서 보았던 그 모습임을 우리는 다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외세와 독재의 추잡한 입김에 유린당하기 시작한 이후로 틈만나면 어김없이 찾아들곤 했던 탄압의 마수였지만 언제나 그보다 강했던 것은 슬기로운 우리 민중들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애국외대에 들이닥친 적들의 탄압의 칼날은 패륜아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날아왔습니다. 6월3일 공안통치의 플래데이자 살인내각의 총수인 정원식에게 백만청년학도의 응징을 대신하려던 우리 애국외대인의 눈빛속에는 분노의 불꽃과 당당함이 넘쳐 흘렀음에도 적들은 우리를 패륜아로 매도하고 유린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경험속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적들의 음모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굽힘없이 애국외대의 긍지를 지켜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애국외대 학우들의 자랑스러움과 당당함을 확인했던 여름농활에서, 전국곳곳에서 통일을 외치며 달려온 통일꾼들 속에서, 우리 외대인의 기개를 심에준 범민족대회에서, 우리들은 건강하게 살아있었고 투쟁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려웠던 속에서도 튼튼하게 지켜냈던 애국외대의 긍지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적들의 비겁한 탄압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걷어내 「6·3투쟁의 정당성회복」이라는 글씨와 「자주학원수호」라는 글씨를 새겨 놓아야 합니다.

구속 수배된 학우들의 생활속에, 절뚝하면 이문동 교경을 제집 드나들듯이 들어와 수색하는 형사들의 오만한 발자욱속에, 학원자주권을 짓밟으려고 이문동 곳곳에서 고개를 치켜드는 치졸한 음모속에 우리를 옥죄려는 적들의 탄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투쟁하여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저는 기필코 돌아갈 것입니다. 학우들이 있는 우리의 터전 이문동으로, 그곳에서 학우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투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학우들께 드리고 두서없이 주섬댄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항상 학우들의 기억속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고 싶습니다. 2학기에도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자주 민주 통일 진군 47년 8월25일 새벽에

〈이문캠퍼스 총부학생회장 김경하〉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

—범민족 대회를 치루고

사수대로서 범민족 대회에 참가함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학교에 참가하고 조국통일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사수대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결의를 내을 수 있게 되었다.

범민족대회일정 속에서 한두시간 잔 낱도 없고 자다가 전경들의 대회장 침탈에 두번씩이나 뛰쳐나간 적도 있고 하루종일 최루가스 속에서 싸웠던 적도 있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계속되는 졸음에 시달렸지만, 조국통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사수대 동지들의 굳센 눈동자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린 학우를 보며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고 우리들의 힘찬 투쟁에 도망치던 경찰전차와 페퍼포그, 전경버스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분단의 원흉, 미제와 그 하수인 노정권의 종말을 보는 듯 했다.

억시 전대협이 결의하고 백만학도가 결의한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새삼 각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민족대회를 보다 많은 학우들과 함께 못했던 것에 가슴이 아팠다. 원천봉쇄로 인해 학우들이 학교에 오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학우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내 스스로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동양·인도어1 신현중〉

독자만평

반갑지 않은 재림 〈법·법학2 이창규〉

스스로를 욕보인 행동

—잘려진 장승을 보며

지난주 일요일 이후, 교문을 들어서던 외대인들은 전과 달리 가지런히 뉘여져 있는 장승들을 보고 희끗이 놀랐을 것이다. 학교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 누군가가 두 장승을 잘라버린 것이다.

지금 길가에 넘부러져 외면당하고 있는 장승은 지난해 대동제때 7천여 외대인의 힘과 사랑으로 이문벌의 자주권 수호를 바라며 세워진 이래, 교문 앞에 항상 듬직하게 자리하던 우리모두의 조국통일, 민족해방의 의지이다.

우리는 흔히 장승이라하면 「주술적인 신을 섬긴다」라는 생각에 거부감을 갖기 쉽다. 그러나 예전부터 특히 장승은 단순히 그것이 세워진 지역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주위에 모여 대동굿을 행하며 그것을 통해 그 지역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대학인들의 터전인 여러 대학에서 장승들이 세워지는 데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대학 구성원의 힘과 뜻을 모아 대학을 자주적 터전으로 만들며 학원 자주권을 수호하고, 대학내 여러 사람의 바램을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지난 8·15대회를 전후해서 우리 외대에서는 학교안의 여러 대자보가 불여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사람에 의해 마구 찢겨지는 일도 여러번 발생했었다.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대학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한 말이나 글로써 표현하지 못하고 일련의 이러한 사건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대학인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장승이 베어진 허전한 자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복구하고 그것을 베어낸 사람이 외대인이건, 외부인이건 철저히 가려내어 조치하고 상치받은 통일의지를 다시금 굳혀야 할 것이다.

〈서양·이태리어 2 김현진〉

작은 봉사, 보람 있는 시간

—범민족대회 자원 봉사대를 마치고

왠지 신바람이 난다.

외대의 교경이 이랗듯 활기로 가득찼던 적이 있었던가?

한여름 태양이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와 건강한 젊음들이 어디서나 넘쳐나고 있다.

그런속에서 나도 한 몫 끼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나를 어린애처럼 설레이게 한다.

범민족대회 기간중 나는 이틀을 자원봉사대로 활동했다. 사실, 학교에서 먹고 자면서 전 기간동안 봉사한 다른 봉사자들에 비하면 봉사했다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하지만.

자원봉사대 티셔츠를 입고 제일 먼저 한일은 식당에서 아주머니를 도와 배식을 하는 것이었다. 주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숨한 열기가 온몸에 확 끼얹어졌다. 그런속에서 잠시도 전혈 업무가 나지 않았었지만 일은 의외로 재미있었다. 자봉대는 그외에 물품판매나 안내등의 일도 했다. 들쳐낡은 후문쪽에서 안내일을 했다.

여학생휴게실이 임시 자원봉사대 대기실로 마련되어 일이 없는 대원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몸이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대원도 있었고, 얘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작게 흥얼거리는 대원들도 있었다. 특히 틈만 나면 한창 선풍적으로 유행하는 『불타는 랭고』를 연습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지친 것은 몸뿐이었고, 모두들 환한 얼굴이었다.

내가 한 일이 감히 통일에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은 못하겠다. 그러나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는 반성이 있다. 죄어도 『통일은 됐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말이다.

또한 이번 행사가 경희대와 우리 학교에서 치루어졌는데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밥에는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순서들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작은 봉사로써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양·일어1 한지혜〉

明水塘 명수당 대학입시 너 마저도

신학기가 다가오면 왠지 모를 설레임과 다른 한편으로는 빨써 지나가버린 방학기간에 대한 약간의 미련등의 감정이 교차된다. 신학기 강의안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외대학보사 기자의 원고청탁을 받고 기부금 입학제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좀 감상적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부금 입학제도에 관해서 거부감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자리도 돈으로 사고 교육위원자리를 차지하기위해 돈으로 시의원들을 매수하는등 너무나 돈, 돈하는 세상에서 돈으로도 안되는것이 남아있어야된다는 지극히 원칙론적인 생각이 머리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모양이다. 처음 기부금 입학제도의 논의가 귀에 들어왔을때 내 머리 속에는 연국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로마의 써저가 정적들에 의해 살해되는 순간 살해자로 나타난 부르터스를 경악의 눈빛으로 보면서 『아,/ 부르터스 너 마저도』하고 외치는 장면이다. 바로 이 외마디 소리가 『대학입시 너 마저도』라는 외침으로 대체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순간적인 느낌을 잠시 제쳐두고 이 제도의 효율성 측면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어려운 대학교 살림으로는 교육이라는 최종생산물의 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생산요소의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훌륭한 도서관시설, 우수한 교수의 충원, 턱없이 부족한 각종 교육설비의 확충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필요한 재원조달의 길은 사방팔방으로 막혀있다. 따라서 부유한 계층의 부를 기부금 형태로 흡수해서 교육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생산적 효과는 약간의 도덕적인 정당성의 결여를 보상하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대학에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소요액의 1~2%에 불과해서 약 30%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기부금 입학제도는 나름대로의 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 대학입학증서를 상품화 시키는데 따른 부작용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의 대학지원율로 볼때 대학 응시자의 25%만이 합격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기부금으로 입학이 허용되면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75% 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이 낙방의 책임을 자신의 노력부족이 아니라 운없음에 돌릴 것이다. 학생들은 재력(財力)없는 부모를 만난 불운을 탓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경제력 부능력을 한탄하게된다. 즉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오늘날 한국처럼 교육열이 왕성하고, 결혼하는데도 우습게도 제일먼저 상대방의 출신대학교를 문제삼는 상황에서 자식의 대학입학은 부모에게는 사활과 직결된다. 자식 문제에 관한 한 부모들은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 섭다. 이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학교의 선택까지 결정된다면 오늘날 한국과 같은 뇌물수수성 사회에서 가장 유혹적인 뇌물에의 유인이 첨가되는 셈이다.

이제까지는 항심을 팔아서 집을 늘리고 외제차를 사고 사치성 해외여행을 하던 층들이 앞으로는 자식들의 입학권을 사기 위해서 부도덕한 것들을 자행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좋은사회란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패자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분발하는 사회이다. 학생들이 교수로 부터 받는 학점에 승복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종 걸

〈경제학과 교수〉

총장도 돈으로 뽑아버리겠다. —?—

4수, 5수…장수해서 외대 들어온 사람 몰아버리자.

—장수생—

청와대도 갈수 있나요?

—졸부의 아들—

그러기에 꿔줬어. 값이 쌀때 합격했어야지

—부정입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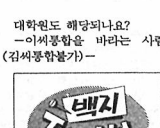
대한상. 그돈으로 건물 하나 헌후 멋들어지게 세우고 이학기제도 최신식으로 들여놓고 1층 사우나 2층 헬스클럽 3층 만화가게및 음란비디오상영장 4층휴게실

—유흥업소 주인—

정신병원에 있는 우리 아들도 되나유? —이순자—

대학원도 해당되나요?

—이씨봉합을 바라는 사람이 (김씨봉합불가)—



주제:기여입학제, 실시만 된다면…

다음주 주제는 「개강 이후 우리가 해야할 일 입니다.

기여입학제 경쟁율 20:1을 초과하다./

—대학입시 상황실—

점수+기부금병산제로 합격점 발표가 ○○과 250점+천만원 △△과 251점+오백만원식으로 발표될 것이다.

—수다장이—

앗싸./ 내동생 합격이다.

—벼락부자 둘째딸—

철회투쟁을 벌이겠다 —FLY—

한사람당 50억만 받는다면… 그인간은 대학 나오나 안나오나 먹고 살긴 마찬가지.

—바득이—

사람은 밝히지 말고 정원의 입학으로 한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이니까 거두어들여 있는대로 부자를 한다. —장—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三星

4메가D램 반도체, 수퍼-VHS, 8mm캠코더…

세계 첨단의 기술을 만들어온 삼성인—

삼성반도체연구소 4메가 D램 개발팀

삼성전자 수퍼VHS개발팀

삼성항공 8mm 캠코더 줌렌즈 개발팀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삼성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첨단기술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술을 이전하거나 가르쳐주려 하지않는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그리고 200년에 걸친 기술의 축적이 불과 20년만에 역전되는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그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세계 초일류가 되기위해서 필요로하는 마지막 한가지는 창의와 도전 그리고 성취의 '젊은 의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결단력의 젊은 의지,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큰 세계를 향하는 젊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온 삼성 ——

삼성은 첨단기술로 세계 초일류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젊은 의지, 세계를 향해 펼치십시오.

인재와 첨단기술의 ——

三星

양캠, 본격적인 학원자주화 투쟁 돌입

서울, 6·3재인식 통한 학칙개정투쟁으로 전환

용인, 학생복지사항에 중점, 개악 학칙 철폐요구

「6·3 외대사건」으로 불리워지는 본교에 대한 16명 수배와 8명에 대한 제적처분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1차 등록연기투쟁과 제적철회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어, 개강과 함께 본격적인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이 벌어져 대학당국과 학생측간의 마찰이 표면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자투에 대한 기본 제안서를 통해 학자투 제기 이유에 대해 △87년 이후 누적된 학원의 비민주적 실태가 6·3으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났으며(학생 자치활동 탄압, 총리 사과방문, 제적등 중징계처리, 비민주적 학칙개악등) △제적철회요구가 학자투의 핵심쟁점으로 되는 근거는 학생의 기본권·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6·3사건의 입장 측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2학기 학자투의 원칙을 △각 학과별 분임토의와 총화를 통해 6·3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 이후 투쟁방향을 제시하며 △각 학과별 학원자주화 요구사안을 대학당국에 제시하며 △간부들을 비상체계로 전환, 일상활동과 학자투를 결합해야 함을 표명했다.

총학생회는 이후의 구체적 학자투 방안으로 6·3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의 자료를 공개할 것과 징계에 관련된 교수의 수강신청을 철회 또는 변경하며, 전공의 경우 전면 거부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문제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학자투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류계환(서양·독어4)군은 「1차 등록 연기투쟁과 제적철회는 학자투의 시작이며, 이후 외견 관철 도중에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 학칙개정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별 학자요구투쟁을 벌인 후 그 힘을 하나로 결집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학자투가 예년과 달리 오랜 기간을 통해 거세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월22일(목)부터 24일(금)까지의 간부수련회를 통해 앞으로 2학기에 벌어질 학자투에 대해 전반적인 토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용인캠퍼스 또한 학자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학칙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캠퍼스와 긴밀한 연락을 갖고 공동보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 캠퍼스의 사정을 고려, 2학기 학자투의 경우 학생복지문제와 91년도 학자합의사항에 대한 대학당국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총동문회와의 갈등 표면화

양캠 총학, 입회비 징수에 강한 반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월8일 (목) 총장실을 방문, 총장과 총동문회비 징수에 관한 내용을 협의 후 재무처장 앞으로 「총 동문회 회비 징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띄워, 현재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 첨부되는 총동문회 회비 징수 납입서와, 84학번부터 87학번까지의 복학생에 대한 납입금 영수증을 91학년도 2학기부터 첨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 공문에서 △총 동문회의 재정적 기반이 많은 부분 재학생들이 내고 있는 반면 본교로 유입되는 재정은 대단히 소규모이고, 동문회가 벌이는 사업등을 재학생이 알지 못하고 있으며 △6·3사건을 계기로 총 동문회는 대학당국과 후배들을 비난하는 데만 한몫 했을 뿐 사건의 실마리를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대체로 매년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현행법상 동문으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고 있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으며 △동문회 총회는 대부분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실태라 이사가 아닌 동문들의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은 일단 양캠퍼스 총학생회와 총 동문회가 협의한 바에 따라 4학년에 대해(복학생 대상)2학기 등록금 납입서에 총 동문회 입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번 공문에 대해 총 동문회 재정이사인 조재현 (베트남어과)교수는 「동문회 가입을 위한 입회비 징수는 전통적인 것인데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현재 총동문회는 이사진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9월 초에 이사진이 꾸려지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총 동문회 입회비는 88학번 이전에는 4학년 졸업시 2학기로 나누어 졸업준비금 속에 포함됐으나 그 이후로는 신입생 입학시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발부되어 왔다.

용인캠퍼스 중앙도서관 준공

지난 89년 9월26일(목)착공 후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친 용인캠퍼스 신축도서관이 지난 8월23일(금) 이강혁총장 및 교수, 재단측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2학기 개강과 함께 일반학생들에게 개방했다.

이번 개관된 중앙도서관은 지상4층, 연건평 2천2백25평의 완전개가식 형태로 건물구조는 공통적으로 건물왼편은 자료실, 오른편엔 행정사무실 및 자유열람실이 배치되어있다.

각층별로는 1층은 열람실 및 행정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2층은 열람실및 소파가 비치된 휴게실이 있어 수면이 가능하며 자유열람실이 배치되어 있다. 3층은 총 3백70여좌을 구비한 정기간행물실과 7천권을 소장하는 참고도서실이 구비됐으며, 4층과 더불어 심포지움과 연구논문발표회가 가능한 계단식 세미나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도서관의 주기능인 열람기능을 고려, 제1·2·3·4층을 열람실에 각각 1백88, 1백88, 1백92, 4백50석과 1·2층 일반자료실에 1백28석, 3층 참고도서실, 정기간행물 실 및 경(輕)도서실에 각각 94석을 배치, 총 1천6백석을 구비하고 있다.

사 령

일

편집장:주재영(인문·철학 3)
논설위원:이원영(서양·독어 3)
정성엽(동학·아랍어 3)
〈이상 3명, 8월 27일자〉

면

편집장:최원일(법·법학 3)
임기만료로 사임
〈이상 8월 26일자〉

제 2학기 학사일정

▲9월4일(수)~5일(목) 제2학기 수강신청과목 변경및 확인
13일(금) '91 졸업시험 응시원서 제출
'91 후기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마감
26일(목)~27일(금) '91전기졸업시험
27일(금) '91전기졸업논문 제출마감

▲10월16일(수)~22일(화) 제 2학기 중간시험
18일(금) '91전기졸업시험 성적보고서 제출마감

▲12월 3일(화)~5일(목) '9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6일(금)~13일(금) 제 2학기 기말시험
16일(월) 동계방학시작

일부 보직교수 인사발령

7월15일자로 46개 보직에 인사조치

〈한형곤 교수〉

〈박정근 교수〉

〈서병완 교수〉

대학당국은 7월 15일(월)자로 일부 보직교수 변경을 시행했다. 변경된 보직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한형곤(이태리어과)교수 △용인 캠퍼스 학생처장 박정근(철학과)교수 △교육대학원장 서병완(교육학담당)교수 △서양학대학장 정국(영어과)교수 △서울캠퍼스 도서관장 윤석주(무역학과—8월1일자)교수 △동양어대학 학장보 송경숙(아랍어과)교수 △서양어대학 서반아어과 과장 박철(서반아과)교수 △서양어대학 스웨덴어과 과장 김상열(스웨덴어과)교수 △동양어대학 마인어과 과장 정영림(마인어과)교수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과장 이경호(인도어과)교수 △정책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과장 김용진(정치외교학과)교수 △서양학대학 서반아어과 과장 손관수(서반아어과—5월29일자)교수 △동양학대학 중국어과 과장 박재우(중국어과)교수 △동양학대학 아랍어과 과장 이두선(아랍어과)교수 △동양학대학 마인어과 과장 양승윤(마인어과)교수 △동양학대학 태국어과 과장 이한우 (태국어과)교수 △동양학대학 아프리카어과 과장 김윤진(아프리카어과)교수 △동양학대학 인도어과 과장 최종찬(인도어과)교수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과장 남용택(무역학과)교수 △무역대학원 교학과장 박석구(경영학과)교수 △경영정보대학원 교학과장 이영환(경영정보 대학원)교수

외대학보 46기 수습기자 모집

자주언론의 새시대를 이끌어 나갈 언론일꾼을 찾습니다.

▲모집대상:91학번
▲모집부문:일반·사진·만화기자
▲전형방법:1)1차 필기시험
2)2차 면접시험
▲전형일자:9월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3일간
▲원서배부및 접수처:양캠퍼스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원서마감:9월24일(화) 오후 5시

외 대 학 보

빈의자

통일의 메아리를 위해

▲분단 47년, 그동안 한(韓)민족은 외세에 허리잘린 조국의 산하를 부여안고 얼마나 통일을 바랬으며, 통일제단에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은 과연 얼마인가?

진정 통일없이는 살수 없는 민족이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겨레의 절규가 이시각에도 남누리북누리 삼천리강산에 메아리 치고 있으며 오욕의 역사에 마야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어제 분단의 장벽을 허물며 통일의 새지평을 열고자 고희(古稀)의 목사와 열혈 청년학생의 통일구국의 혼과 남과북, 해외동포의 7천만 겨레가 뿜어내는 「8·15 범민족대회」의 뜨거운 통일의 열기는 그 누구도 멈춰 세울수 없는 민족사의 세찬 격류인 것이다.

▲지난 7일(수),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확정되었다. 이에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게 된만큼 상호 존중과 북한을 적대시한 국민감정을 해소시켜 통일의 반쪽하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7일(토) 모신문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5년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시기로 세계적인 냉전완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비, 국민총생산의 4% 수준인 국방비를 4.5%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시대와 동떨어진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발언은 서로 불신과 반목, 질시를 줄뿐 통일엔 오히려 저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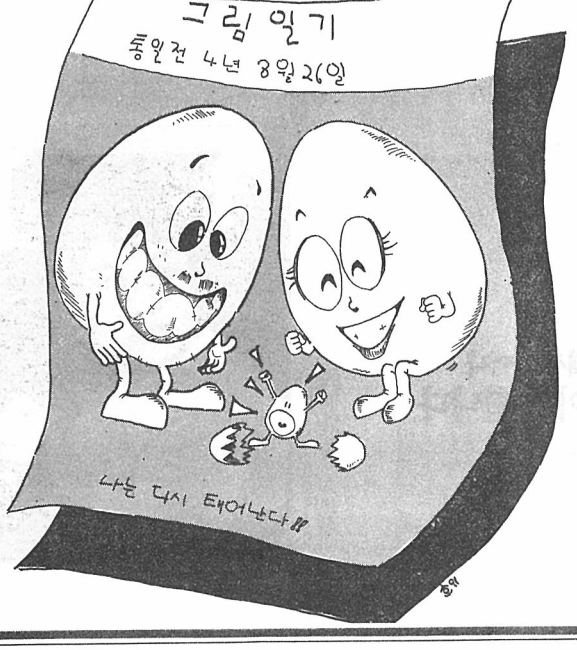
▲남북을 갈라놓은 분단의 철책선을 끊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이것이 바로 평화통일의 최우선 요건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국방비 증대가 아닌 축소로 감군과 군축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평화통일의 밝은 국면을 열자면 남·북한사이에서 준전쟁상태를 강화하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는 일도 시급하다.

또한 극도로 팽배해진 남북간의 대결 자세를 화해의 자세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며 남북한당국은 서로 북침또는 남침하지 않겠다는 것을 온 민족과 전 세계앞에 확약하는 남북공동의 불가침선언을 발표해야 한다.

불가침선언은 대결에 대한 고별사이며 평화협정은 전쟁에 대한 종식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김상권〉



제가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족자주언론의 선봉이 되고자,
1만3천 외대인 여러분이 주인되는
신문이 되고자,
외대학보는 오늘도 큰 울음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외대광고상」신설—광고도 독자여러분의 것입니다. 91년 2학기부터 외대학보에서는 「외대광고상」을 신설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광고를 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공고)

●여론면—「이럴땐 이렇게」란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휴학신청, 장학금 신청, 입영원 제출방법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학생활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기획면—8면 고정칼럼인 「생활안내」란이 폐기되고, 3면 취재면의 사진기사인 「초점」이 학내복지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다루기위해 8면으로 옮겨집니다.

외 대 학 보

주민과 함께 해야 할 교육자치

외대논단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앙탈피, 지방교육재정 확립 시급
지역특성 살린 교육과정 개발해야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자치제의 실시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와 함께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교육자치가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었고, 주로 「지배이데올로기의 강요」와 「말국적인 입시교육」등으로 점철된, 왜곡된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한 것이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로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함께 이제는, 올바른 교육자치의 내용과 형식의 실현을 위한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 3월 26일에 실시된 기초 지방의회 의원 선출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해게 되었다. 이 법률의 구체적 시행의 첫단계인 8월 10일의 전국 시·도교육위원선출로써 비로소 30여년 만에 부활된 교육자치제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번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교육계에 있어서의 온갖 부패·타락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고 이러한 것의 바람직한 개선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지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참여하는 교육자치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과 문제점

우리의 교육자치제는 선진국의 교육구와 같이, 임의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한 특별자치단체가 아닌 일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통제나 행정적 간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시작되는 것이다.

교육자치제의 실시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구교육법에서 조차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양 단위의 교육자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 교육자치법은 예산의 낭비, 행정적 손실 등을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은 결국 교육을 교실 내의 학생과 교사 상호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자치는 보다 시급한 문제로 지적할수 있다. 신법에서는 이러한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의 실시여부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해서는 그것이 자율성과 자주성을 이뤘게 확보하는나자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 위원의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시—군·구 기초의회가 복수로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시·도 광역의회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선출과정은 이중적 간접선거로써 교육자치에 주민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금권·타락 및 정치성을 띤 친여세력과 비교육적 인사들의 대거 등장으로 교육계의 정치오염을 낳고 있다.

현재의 교육자치에 있어서 또 한가지 분명히 지적해야 할 점은 중앙통제의도이다. 교육감 산하 보조기관 및 교육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지방교육자치법 40~43조)이라든지 교육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감시와 보고요구 권한(지방교육자치법 49조) 및 부교육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제도적으로 교육자치를 억압하여 교육에 있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될수 밖에 없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립 또한 교육자치의 선결요건이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교육예산을 각 시·도에 배정하고 집행·감독하는 중앙집권적 체계였으나, 이번에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안을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시·도의회에서 확정짓는 방향으로 바뀌어진다. 물론 지방교육재정 중 중앙정부의 지원액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위원회가 위임형 의결기구여서 완전 독립적인 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국고 의존이 불가피한 현행 교육체제 속에서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재정의 분배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야말로 교육자치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올바른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육민주화를 위한 방안

지난 8월 10일 마무리된 교육위원의 선출과정은 온갖 부패와 타락상을 한눈에 보여주었으며 교육자치제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 이와같은 복수후보 추천·이중간선제 등 복잡한 선출절차를 꿰맞침할 관련법규의 미비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더욱 큰 문제는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이의 근본적 원인은 현행 제도가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배제하는 형태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다원화·다양화되어 가는 사회발전에 대응하는 교육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유보돼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제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교육위원 간선제도 직선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사례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지켜 보았듯이, 주민들의 감시자적 역할의 제고와 자치와 참여의식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가 이미 출발선을 떠난 이 시점에서는 학부모·교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문제이다.

교육자치제의 근본취지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데에 있는 만큼 각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가르쳐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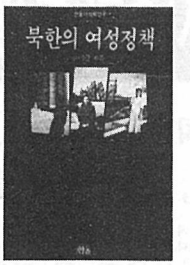
즉, 현재까지 교육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구성과 기본지침을 정하되 시·도 교육위원회가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이원적 교육과정 개발체계」의 실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자본 중심의 교과서 내용에서 유래되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걸맞는 교과서가 필요하며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을 위한 길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육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인 교육통제」와 「지배이데올로기의 양산적 역할」등으로 얼룩진 반민주적, 반인간적교육 그 자체였다.

따라서 지자제 실시에 즈음하여 「교육자치」가 실현되어 기존의 행정권의주의적인 교육의 폐해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예속성을 탈피해야 하며 여기에서 비로소 교육의 자주성은 확보될 것이며, 이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심 상 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햇 글



■북한의 여성정책(윤미량지음)

이책은 북한여성정책의 전개과정을 북한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조명하고 있다.

북한은 왜 정권초기부터 일관되게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여성을 동원해 왔는가. 그 동원과정은 어떠하며 현재의 정책은 어떠한가. 이러한 의문을 마르크스—엥겔스의 유물론적 여성해방론에 기초해서 시기별로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한 북한여성연구의 입문서라 할 수 있다.

〈한울퍼냄 5천원〉

■1894년 농민전쟁연구 I (한국역사연구회편)

당시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현시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이용함은 물론 기존의 사료들을 바르게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농민전쟁의 실체를 정당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에 필요한 역사적 교훈을 100년전의 치열한 운동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비평사퍼냄 6천4백원〉

■한국공해 리포트(니시나 겐이치 노다교우미 지음, 육혜영옮김)

이땅의 공해현실에 대한 심층적 추적보고서이다. 이를 위해 공해문제의 원론적접근이나, 외국사례를 다루기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통계자료와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공해와 관련한 지역주민운동, 소비자운동, 반전반핵운동등 사회변혁운동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개마고원퍼냄 3천5백원〉

■소련변혁의 논리와 갈등(김석환지음)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정책이후 소련의 이데올로기 변화과정을 엮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소련현지특파원으로써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소련 변화과정의 진통과 문제점들을 해석, 평가해 주고 있다.

소련의 민중들이 겪고 있는 이념의 갈등, 경제적 궁핍에서 오는 실제적 난관들을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비추어 잘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후 상호국가의 관계변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민맥퍼냄 4천원〉

토지초과 이득세

소금상자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는 1989년 토지공개념도입에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초치로써 9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세목이다.

투기지역 유휴지의 1년간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치의 1.5배 이상인 지역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를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 유휴지 판정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만으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예외조항은 「실무대책」의 명분으로 재벌에게 투기의 길을 터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포항제철·롯데등 재벌이 토초세 예정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과 벌이는 공방전은 토초세가 가진 문제점에서 기인한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생활속에서

콜레라

지금 전국은 콜레라 비상에 걸려 있다. 심지어는 콜레라로 인하여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는데 외학적인 측면과 임상적인 측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콜레라 유행의 발원지는 파키스탄으로 알려져 있다. 치사율이 높은 전형적인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침입한 기록은 1524년으로 되어 있으며 그후 1947년까지 수차례의 유행(34회)을 거듭하며 많은 사망자를 냈었다.

콜레라란 콜레라균과 그 독소에 의하여 잦은 설사와 탈수로 인해 허탈상태에 빠지는 질환이며 병원균은 비브리오 콜레라 (Vibrio cholerae)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엘톨 콜레라라 하여 치사율이 낮고 불현성(不顯性)감염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콜레라균은 감염자의 배설물(변, 구토물)로 오염된 물, 음식 및 과실등의 경구섭취로 감염된다. 전형적인 콜레라 증상은 1~5일후의 잠복기 후에 대량의 설사와 구토로 시작된다.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심한 설사와 구토가 나더라도 발열, 복통을 호소하지 않는다.

대량의 설사와 구토로 환자는 탈수상태에 빠져 피부는 차가와지고 건조해져 탄력성이 없어진다. 좀더 임상적 증상이 진전되면 체온은 35 ℃이하로 내려가고 혈압은 저하되어 맥박은 약해진다. 입술과 사지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장딴지근에 경련이 생긴다. 쉰목소리, 요량감소가 나타나고 때로는 무뇨증에 빠지기도 한다. 의식은 명료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혼수·기민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 허탈기에 이어 수시간, 또는 24시간내 대개는 사망한다.

콜레라 유행시에는 유행지의 방역상태와 위생조건, 나아가 계절조건(더운 건기)이 중요하다. 개체의 발병 조건으로는 노인에 많고 소화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병에 걸린다.

유행지나 감염경로가 명확한 경우 고전적인 증상만으로 진단은 쉽게 되나, 일반증상에서는 다른 자중설사질환과 구별해야 한다. 콜레라의 치료는 탈수와 전해질 이상에 대한, 대량의 급속 체액공급이 중요하다. 수액은 병초기에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혈장 삼투압에 의한 탈수 정도를 보면서 수액량을 조절한다.

요즘은 치명률이 많이 떨어져 대개 1%내외이다. 그러나,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사업과 보건교육을 통한 예방임은 말할 것도 없다. 연일 계속되는 콜레라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콜레라 집단발생에 대한 보건행정은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방역보건의 헛점을 드러내었다.

지난 백여년동안 한명의 콜레라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남미대륙에서 지난해 12월경에 70만여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전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보건당국은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콜레라 집단발생사건을 보며 우리의 방역보건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모두가 알았을 것이다. 각 보건소에서 각 시·도로, 각 시·도는 다시 내무부와 보사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는 콜레라 전염속도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보건행정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행정이 내무부와 보사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개선이 속히 이루어 져야 하겠다.

김 동 원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인간존중의 경영

脫

偏見과 權威意識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
기업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변혁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직위와 서열을 내세우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기업—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21세기를 열어갈 진취적인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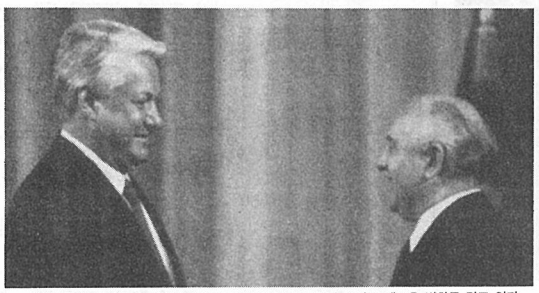
럭키금성의 새로운 기업문화—
그 차이가 기업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럭키금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편견과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문화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럭키중앙연구소의 여성책임연구원, 박정옥 박사— 그에게서 21세기를 향해 오늘도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가꾸어가는 럭키금성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럭키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정옥 박사
미국의 명문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첨단 화학기술 개발을 향한 도전의지를 품고, 화학분야에서 국내 최대규모인 럭키중앙연구소에 입사. 럭키금성의 첫 여성 책임연구원이기도 한 그는 입사 1년만에 6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한 탱탱한 연구원으로서, 일에 있어서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럭키금성의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가꾸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럭키금성

개혁정책의 본질과 소련의 변화

개혁속에 감춰진 행로이탈의 비밀


소련 쿠데타 이후 고르비와 옐친의 권력공유가 이루어져 소련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최근 며칠동안의 세계의 시선은 온통 모스크바로 집중되어 있었다. 소련의 최고지도자로, 세계평화의 사도인양 뽐내던 고르바쵸프가 실각하고 8인의 비상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라게한것은 소련 역사상 초유의 군부쿠데타나 반쿠데타 시민저항운동(옐친의 지도)이 아니라 평정된 모스크바와 소연방의 해체, 공산당해체등의 이후 변화과정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혁명 70주년을 맞이하던 1987년 서울에서는 소수의 진보적전해(민중이 주인대접을 받는 사회주의)와 다수의 보수적전해(반민주적·반인본적 사회주의)의 대립에서 반공(Red complex)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로서의 시각전환을 이루면서 민족자주, 민중민주와 미래를 새로운사회의 모습으로 아로새겨왔다. 그러나 1991년 8월은 사회변혁에 관심이 있건 없건 우리모두의 기존의 전해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 버리고 만다.

고르비가 당서기장으로 취임하던 시기 소련은 경제적 고통을 평화군축으로, 외교·정치의 문제를 개혁(페레스트로이카)으로 자신의 노선을 밝히면서, 당 지도부에 많은 개혁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서방선진국의 물질적풍요—그속에 있는 독점과 착취의 비밀은 주목하지 않고—에 눈이 먼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개혁·개방(글라스노스찌)에 대한 이견으로 고르비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에 자신의 정책노선을 책임지고 올곧게 나갈 일꾼들을 찾아세우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소연방내 민중은 세가지문제로 고통받는데, 그것은 첫째 민족적 차이가 차별·대립으로 확대되는 문제 들째 계획경제의 구조가 민중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 세째 당과 공장·농장·군평의회가 민중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문제등이다.

고르비는 이러한 문제를 권력상층의 개혁과 개방으로 해결하려 들었지만, 연방내의 지역 공화국은 민족문제해결을 연방이탈로 공식화 시켰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밀을 추수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확량20%가 감소하고, 열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파업으로 운반량의 50%가 부패하고, 특등품의 밀이 모스크바와 사할린에 도착할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경우도 생겨났다. 이렇게 뒤죽박죽된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소련공산당은 91년 8월25일 고르비의 당서기장직 사임과 지역공산당의 독자적발전, 중앙과 지역당의 재산을 인민위원회재산으로 압류당하면서, 역사의 뒷편으로 물러갔다.

노동자·농민평의회 등의 형식적 민주주의로 인한 자주적 민주주의의 구현과 새 세대 핵심일꾼이 부재

잠시 소련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공산당내부는 고르비가 확고한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스탈린적 보수극좌, 고르비형 개혁세력, 조합주의적 사민주의세력, 옐친과 같은 극우보수세력까지 다양한 구조로 나뉘어있다. 물론 많은 우파세력들이 탈당하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었지만 고르비실각과 북괴이전에는 간판조차 제대로 걸지못했다가 옐친이 반쿠데타시위의 정점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주요정치세력에서 일약 소련정치권력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둘변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붉은 군대와 KGB는 민중의 관심을 끌지못한채 지역공화국수비대로 제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병사소비에트, 노동자·농민평의회등은 자신의 기구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자주성을 빼앗기고 상층의 노선을 내리관철당하는 의존적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소련이 처한 위기상황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한다.

첫째 소련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왜 고르비, 옐친을 살려두었는가라고 무지하게 질문하는 부르조아정치학자에게 소련군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민중의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시민저항운동시기에 3인의 모스크바시민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보부족으로 쉽게 애단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3인의 죽음으로 전체 소련군대모두를 살인집단으로 규정하는것은 소련군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둘째 노동자·농민평의회가 지역단위별로 뿌렷한 자기색깔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만 전개할 뿐 전국적인 조직·사상적 통일을 보장해내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소련공산당과 연방대의원 대회의 개열대표제가 형식—지역노동자, 계열노동자 대표자—만 화려한 민주주의일뿐 지역과 전국을 집약·집중해내는 자주적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지못하다는 점이다.

세째 세세대의 건강한 핵심일꾼들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콤소몰(소련공산당청년동맹)이나 학생평의회가 소련역사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인식을 뒤로한채 시기별로 들출적인 결의만 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청년조직을 지도해내고 당면한 사업속에서 통일적인 정책과 노선을 내오는 것이 아니라 상층의 정치적편향만이 들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의 개혁, 군부쿠데타, 고르비실각, 북괴시기의 자신의 입장이 일관되게 관철되지 못했다.

네째 CIA정보공작과 옐친과 자유주의자들의 정치행보가 단한걸음도 어긋나지 않게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CIA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수의 연구기관의 소련문제전문가(전백악관관리였던 브레진스키류의 전문가집단)들은 하나같이 고르비실각, 옐친의 실권장악, 고르비—옐친연합정부구성, 공산당해체의 문제까지 지적하는 예언가적 자세까지 보였다.

소련은 하루가 다르게 자신의 지위를 변화시키고 있다. 87년 동서화해와 평화시대로의 전진이후 소련 내부의 문제를 자기민중의 힘으로 풀기보다는 미제국주의와 선진제국의 자본의 능력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르는데 지역공화국의 연방이탈, 공산당불법화, 재산강제압류등 반공적 매카시선풍으로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분간 소련의 혼란은 계속될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이념적 혼선, 정치·경제 전분야에서의 무계획성은 소련사회주의 개혁의 필요조건인 당과 연방의 붕괴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될것같다. 소련은 100여년이 넘는 혁명의 역사를 마감하고, 왜곡된 자유주의자들에게 신성한 소비에트사수의 의무를 넘겼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독재정권에서 고통받는 제3세계 민중은 결코 역사의 새로운 전진을 멈출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해온 선자자들이 있고, 자주시대의 필승불패위업을 달성해온 민중의 자주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경훈
〈조선근대사연구회간사〉

신(新)공안탄압의 '싹쓸이 작전'

학생운동 탄압 전술

방중탄압으로 인한 일시적 침체현상을 극복하고 민주정부 수립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안탄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광역선거에서 일방적인 압승(?)을 거둔 현 정권은 마치 준비된 선물포장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는 것처럼 민족민주운동(이하 민민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나섰다.

지난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계속되는 범국민 규탄대회와 정권퇴진 운동에 일정정도 수세에 몰려있던 노태우 정권은 분신배후조정설및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계기로 제도언론을 통해 민민운 세력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현 정권에게는 때마침 유효적절한 효재(?)로 작용한 6·3 본교 정총리서리 항의사건(이하 6·3사건)을 빌미로 본격적인 「운동권 일망타진」에 나섰던 것이다.

6·3사건 이후 나타나는 현정권의 민민운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들을 보면, 5~6월 달중 집회및 시위주동 혐의로 국민회의 간부 구속, 전교조 서명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 범정소란 이유로 강경대군 아버님 구속, 그리고 노동현장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등 이루 다 열거하기조차 힘들만큼 민민운상에 입각한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이적단체로써 청주대 「자주대오」사건, 27일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학술논문 게재 이유로 서울사회과학 연구소 (서사연)연구원 6인을 전격 구속했다. 이들 세 조직사건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치밀한 각본하에 진행된 엉성한 사건조작이라는 것이다. 서사연 사건의 경우 필소 북한의 노선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 연구원들의 학술문을 「북한찬양 고무죄」로 구속했다는 것은 무조건 「뒤집어 씌우고 보자」는 조직사건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학생운동권 조직사건들을 보면, 현정권이 전대협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그것은 서울대 민해활 사건에서도 알수 있는데, 당국은 민해활 조직이 서울대 총학생회와 전대협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현 서총련 부의장이며 전대협 외장 권한대행인 이철상(서울대 총학생회장)군이 주요 조직원이라고 밝힌것에서도 이를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일련의 조직사건의 또하나의 특징은 국군 기무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학생운동 출신에 대해 프락치 활동강요및 강제징집등을 통한 녹화사업으로 잘 알려진 군기무사는 지난해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를 계기로 그 실체가 드러난 후 기무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지 채 석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학원가에 프락치 활동및 사찰행위를 자행했었고 이제는 학원운동권과 관련된 조직사건의 배후에 군기무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전대협 간부에 대한 검거·수배와, 북한의 노선에 따라 전대협을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전대협 정책위에 대한 조사등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 정권은 전대협 핵심간부들을 구속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침체를 노렸다 할것이다.

6·3사건 이후 자행되는 학운탄압의 또하나의 방향은 정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학교당국에 의한 간접적인 탄압의 경우라 하겠다. 6·3사건이 터진 불과 3시간 후에 본교는 좌관기 수익금 규제, 학사제적부활등 소위 「학원 안정화 대책」이라는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본교의 경우 실제로 학사제적제도가 부활되었던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다.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학운탄압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탄압과는 달리 그 강도와 방법이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집중적인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민통 사건이니 조통그룹이니 하며 전대협을 중심으로 얽은 대규모 조직사건에서도 예견된 일이지만 92,93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막바지 안정지배체제 확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 정권이 꿈꾸고 있는 92, 93년 선거 승리와 향후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장 「눈에 가시같은 존재」인 민민운 세력에 대한 「싹쓸이 작전」이 주된 전략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위력한 반민자당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된 학생운동에 대한 「섬멸작전」은 현 정권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인것이다. 또한 지난 5~6월 투쟁을 경과하면서 범국민 대책회의의 중추세력이 전대협 이었다는 것과 대중동원력, 그리고 현재 반민자당의 핵심세력이 학생운동 이라는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자행되는 학운탄압은 그리 놀라운 사실만은 아니다.

92·93년 대격돌 앞두고 민민운세력 검거선풍

전대협 간부구속·조직사건 연출로 학생운동 침체 노려

세력에 대한 탄압의 회오리는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러한 탄압의 근거로 작용한 것은 6·3사건 외에도 광역의회선거 압승으로 인한 현정권의 자신감에 찬 안정적 지배구도 확립과,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체제수호(?)의지의 강력한 표출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또한 민민운 세력에 대한 일련의 탄압들을 살펴보면 현정권의 핵심공격 대상이 학생운동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6·3사건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하 학운탄압)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직접적인 방법으로써 학생운동권 출신에 대한 수배·검거 조치및 이들을 근간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사건의 속출이다.

6월5일 치안본부는 소위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각종 시위를 주동하거나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서울대「민족해방활동가 조직」(이하 민해활조직)사건을 터뜨렸다. 그리고 12일에는 역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이적단체로써 청주대「자주대오」사건, 27일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학술논문 게재 이유로 서울사회과학 연구소 (서사연)연구원 6인을 전격 구속했다. 이들 세 조직사건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치밀한 각본하에 진행된 엉성한 사건조작이라는 것이다. 서사연 사건의 경우 필소 북한의 노선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 연구원들의 학술문을 「북한찬양 고무죄」로 구속했다는 것은 무조건 「뒤집어 씌우고 보자」는 조직사건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학생운동권 조직사건들을 보면, 현정권이 전대협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그것은 서울대 민해활 사건에서도 알수 있는데, 당국은 민해활 조직이 서울대 총학생회와 전대협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현 서총련 부의장이며 전대협 외장 권한대행인 이철상(서울대 총학생회장)군이 주요 조직원이라고 밝힌것에서도 이를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일련의 조직사건의 또하나의 특징은 국군 기무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학생운동 출신에 대해 프락치 활동강요및 강제징집등을 통한 녹화사업으로 잘 알려진 군기무사는 지난해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를 계기로 그 실체가 드러난 후 기무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지 채 석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학원가에 프락치 활동및 사찰행위를 자행했었고 이제는 학원운동권과 관련된 조직사건의 배후에 군기무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전대협 간부에 대한 검거·수배와, 북한의 노선에 따라 전대협을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전대협 정책위에 대한 조사등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 정권은 전대협 핵심간부들을 구속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침체를 노렸다 할것이다.

6·3사건 이후 자행되는 학운탄압의 또하나의 방향은 정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학교당국에 의한 간접적인 탄압의 경우라 하겠다. 6·3사건이 터진 불과 3시간 후에 본교는 좌관기 수익금 규제, 학사제적부활등 소위 「학원 안정화 대책」이라는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본교의 경우 실제로 학사제적제도가 부활되었던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다.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학운탄압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탄압과는 달리 그 강도와 방법이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집중적인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민통 사건이니 조통그룹이니 하며 전대협을 중심으로 얽은 대규모 조직사건에서도 예견된 일이지만 92,93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막바지 안정지배체제 확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 정권이 꿈꾸고 있는 92, 93년 선거 승리와 향후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장 「눈에 가시같은 존재」인 민민운 세력에 대한 「싹쓸이 작전」이 주된 전략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위력한 반민자당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된 학생운동에 대한 「섬멸작전」은 현 정권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인니다.

지난 6·3사건 이후 소위 「신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불리워지는 최근의 탄압사례들은 현정권이 이미 예정된 계획을 별무리없이(?) 진행하는 것일뿐, 6·3사건이나 광역선거 승리를 계기로 자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탄압의 명분을 보다 미화시킬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일뿐 그것 자체가 탄압의 직접적인 추동력이 아닌, 체제개편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현정권의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2학기 각 학원가의 개강을 전후로 방중탄압으로 인한 일시적인 침체현상을 극복하고 하반기 지난 한 투쟁을 예고하는 학원자주화 싸움과 민주정부수립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그것은 92,93년 대격돌을 앞두고 더이상의 토대구축이 아닌 이미 축적되고 강화된조직역량위에서 하반기 학생운동이 짊어져야할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이다.

〈박현숙기자〉

무한대의 첨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하는 사람들 —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갑니다.

미래 자동차기술의 이정표를 세운다.
현대 마북리연구소 연구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을까?
상큼한 내음이 풍기는 무공해 연료가 있으면
좋을텐데…
음속을 초월하는 초고속 자동차는 언제쯤 타 볼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이땅에 인간의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간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는
현대 마북리연구소 사람들—
이들이 바로 꿈속에서도 태산처럼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하나, 둘 풀어가며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 한국의 내일을 밝히는
연구소의 불빛 —

인체공학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 이상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마북리연구소 연구부—

이곳의 연구는 크게 4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①엔진의 성능 향상과 수소, 알콜 등 대체연료의
개발을 담당하는 열유체부문 ②엔진 경량화,
저소음·무공해를 연구하는 구조해석부문 ③연료분사,
점화시각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자부문
④플라스틱, 세라믹 등 초경량, 고강성의 신소재 개발과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재료부문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자동차, 꿈의 자동차 시대를
앞당겨 가는 연구소의 불빛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창조해갈
역사의 참주인은 바로 그대 —

지금은 인간의 행복과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내일을 힘모아 창조해 가야할 때입니다.

진리의 길에서도 자칫 편견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위대한 장점으로 바꿀 줄 아는 젊은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여러분은 역사의 참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HD 現代自動車

오늘의 정신으로 내일에 도전한다
4

7천만을 하나로 이은 범민족 대회

91 서울 범민족 대회의 의의와 성과

올 범민족대회는 지난해 결성된 범민련이 주최하는 첫 대회였다.

『산을 넘으면서 지치고 피곤하였지만 동지들의 사랑과 어머니의 품성을 실천하는 동지를 보며 다시한번 범민족 대회시수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14일 밤 12시.

1만여 경찰의 3겹, 4겹 원천봉쇄망에도 불구하고「91 서울 범민족대회」(이하 범민족대회)사수를 위해 경희대 뒷산을 4시간여 걸쳐 넘어 진입투쟁에 성공한 5천여 청년학생들을 대표한 대경총련 소속 한 학우의 말이다.

범민족대회가 개막되기 3일전인 9일부터 대회장소인 경희대는 1만2천이나되는 경찰이 배수진을 치고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이 되는 비핵군축과 통일방안을 알리기 위한 통일선봉대의 평화진격투쟁에는 경대를 때려죽인 경찰의 쇠파이프와 곤봉, 방패가 난무했다. 그리고 범민족대회의 추진본부인「조국통일범민족 연합」(이하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는 7명이 구속

범민련 조직 강화와 통일운동의 대중화 작업 이뤄야

비핵군축 연방제 합의로 통일운동의 지향점 밝혀

되고 6명이 사전영장이 발부되었고, 백만학도의 통일·단결·투쟁의 중심인 전대협은 제5기 김종식 의장을 비롯 8인 중앙간부가 구속되고 81명이 수배되는 제도적 탄압에 옭조려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정권의 꽉짜여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노천극장은 전국에서 모인 3천여명의 통일을 염원하는 학생들이 모였고「비핵군축」,「연방제 합의」,「조국통일 완수」의 힘찬 함성으로 메아리 쳤다.

이번 범민족 대회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하는 범민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일의 중심기조및 의의를 표방하였다.

먼저 한반도 통일방안의 합의로써「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의 정부, 두개의 체제」를 수립하자는 연방제의 제기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된 연방제란 50여년간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 할때 하나의 체제로 일방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연방정부가 민족전체의 이익에 맞게 외교·국방권을 담당하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각각의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비핵군축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도로 핵무기 철거, 남북상호불가침 선언 체결,「전시 접수국 지원협정」철회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전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준비작업이 될것이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실현으로 남과북·해외로 퍼져있는 한민족을 범민련의 기치아래 결집시켜, 모든 통일세력의 구심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위의 3가지 의의중 91조국범민족대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한반도 통일방안 합의와 한반도 평화보장의 대중적 요구와 통일운동이 대중적 조직 역량강화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현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및 정권의 통일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는 것도 성과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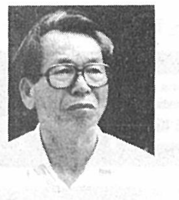
한편 현정권은 6·3투쟁이후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에서 그들의 기만적인 북방정책을 더욱더 세련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통일외교」라 불리우는 선언적 모습으로 자신들의 반통일성을 철저히 은폐하며 통일의 주체를 흘리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의도는 통일대행진 제안등 가시적인 통일정책 이면에 계속적인 통일인사 구속, 범민족 대회에 참가하려는 해외·북한 대표의 입국 불허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작년 북한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이어 91조국통일범민족대회를 남한에서 치루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올해의 범민족대회도 실무 주체가 전대협을 비롯한 학생이었다는 범민련 조직역량의 한계점을 노정 시켰다.

이에 통일은 반드시 학생운동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내기 위하여 먼저 대중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또 현정세와 결합하여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반민중성 제국주의적 성격을 선전 해낼때만이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장 대행 강희남 목사



△범민련의 위상과 역할은.

—범민련은 조국통일이라는 전민족적과제하에서 남·북·해외동포들의 역량은 모아 통일운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할수 있다. 조국통일은 개별적 역량만으로는 결코 않아을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범민련은 이것들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내고 이러한 대중적기반위에서 남북협상의 실질적 주도권을 민족민주세력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현정권의 범민련 탄압에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범민족대회 준비과정에 있어 정부측은 지원 협조를 확약한바 있고 범민련도 통일원과의 합법적 협의아래 범추본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권은 이러한 약속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관계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스포츠단일팀, 경제교류등 거보적 진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권의 탄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범민련은 범민족대회를 걸까지 사수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 정권의 기만적 통일정책을 폭로하고「조국통일의기관차」로 전면대응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의 방향은

—현정권은 범민련을「북한의 맹종세력」이라는 빌미로 탄압하고 있는데 범민련의 기본방향은 남북, 해외동포의 역량을 어느한쪽에 치우침없이 모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제에 있어서도 범민련은 단계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와는 차이점이 있다. 연방제의 성숙도에 맞추어 연방정부의 지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다.

과학적·체계적통일운동관 수립이 조통투쟁의 과제

△미국과 현정권의 한반도 통일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노정권은 북방정책을 표방하며 겉으로는 사회주의권과의 다각적인 교류증진, 경제협력 운운하며 사회주의권과의 문호 개방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민족인 북한과의 교류는 창구단일화등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걸프전이후 세계패권구도하에 한반도를 장악하려하고 있고 노 정권은 미국의 의도에 맞게 흡수통합의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본질적 속성상 분단고착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사회 변혁과 통일운동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하는가.

—한국사회 변혁에 있어서「통일」과「남한사회변혁」은 동시적인 과제로써 분단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이 둘은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다. 통일운동은 단순히 감상적인 운동이 아니라 반통일세력을 타도해 나감과 동시에 전민족적인 통일염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인터뷰

91 범민족대회 청년학생 축전 해외동포 대표 이은주씨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속에서 통일 모색해야

△해외 동포들의 생활상및 통일의 바램 수준은

—미 제국주의 퇴폐문화에 길들어 살고있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족인식을 고양하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문화 이해하기 등의 형식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바램은 극히높다.

△해외동포가 느끼는 통일의 가능성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해외동포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해외에서는 범민족대회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 6월30일 베를린 3자 실무회담 결의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집회와 강연회 등을 열어 통일의 열기를 높여왔다.

이번 통일대축전과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려는 해외동포 대표단은 오는 13일까지 일본에 모일 예정이다.

만약, 남쪽정부가 입국을 불허한다면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범민족대회와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미주청년조국통일협의회는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

—88년8월 결성된 청년운동 단체로 회원수는 20—30명이며, 대부분 학생들이다.

정부는 친북단체로 볼른지 모르나 그런 시각 자체가 분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에 뜨거운 관심을 가진 해외단체를 꼭 내편, 네편으로 가를 필요가 있겠는가?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 현정권의 통일정책을 바라보는 견해는.

—예속정권의 반통일성은 익히 알고 있다. 일회적이고 기만적인 통일정책으로 남한민중들에게 통일에대한 환상만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시각속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하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통일방안들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남북한 유엔 부리가입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한가.

—이는 2개의 국가로 인정되는 비극적사건이었다. 이러한 유엔분기가입은 결국 그자체만으로는 향후평화공존의 근거를 갖고있지 않기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단일의석 가입이 추진되어야한다.

△국토순례 대행진에 참여하는 기간중 가보고 싶엇던 곳은.

—광주 망원동묘지에 참배할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영광이겠고 북한의 백두산에 오르고 싶다.

△이은주 대표의 개인적인 통일방안은.

—강대국의 이해와 논리에 의한 통일논의는 무의미하며 철저히 자주적인 입장에서 통일이 전제되어야한다.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 공동기자단〉

'91 범민족 대회 상황일지

8월 13일

범민족대회 본대회장인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오후 3시에「국토종단 대행진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불가침 선언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와 범민족대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김희선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이하 범추본)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서울대 학추위장 김인식씨는 서명운동 경과보고를 통해『군사적 긴장 대결구도가 끊임없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명운동은 상반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8월9일 전대협 서명의 날에 총 5만명의 서명성과를 거두면서 4천만 애국민중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절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고위급 회담, 임시국회, 국방부 유엔총회에서 서명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9시에 범민족 대회 청년학생 환영단 파견및 대국민 가두서명 출정식이 진행되었다.

8월 14일 오전 8시에 통일학생축전 정치회담 남측 결의대회가 용성총련 의장 이국형(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남북 정치회담 의제 제안 및 통일투쟁활동 보고, 남측 청년대표 결의문 채택등이 진행되었다.

총 4가지로 제안된 정치회담 의제는 첫째, 통일방법의 의제 제안. 둘째, 남북불가침, 비핵지대화 제안. 셋째, 대중적 통일교류 제안. 넷째, 전대협, 조선학생위원회, 해외청년 학생회, 연대기구등 네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오후 4시에는「90년대 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경희대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약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91년 서울 범민족대회 연구 토론회」가 열렸다. 또한 이날은 지구별 결의대회및 91년 범민족대회 성사및 1995년 통일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이자리에서 김희선 범추본 부의장은『문익환 목사님은「민주는 민중의 부활,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다』며『반민주·반통일 세력을 척결하고 범민련 남측 본부를 결성하자』라고 말했다.

8월 15일

오후 4시 10 분경부터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범민족대회가 열렸다. 약 3백여명의 참석자가 회의장인 경희대 크라운관을 조국통일의 열망으로 식히면서 남·북·해외동포 7천만 겨레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조국통일의 힘찬 전진을 할수있는 이정표가 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결의문은 서울, 판문점, 동경에서 동시에 발표된 것으로 조국통일의 현실적 과제를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으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입각, 분단47년의 현재적 상황에 맞게 작성되었다.

또한 이날 밤 9시경에 범민족대회 본회담 보고와 이후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는데, 이번 '91범민족대회에 대한 미국과 노정권의 끈질긴 무산음모에 대한 규탄연설이 남북한 해외청년학생통일대축전 해외동포 대표로 참석한 이은주씨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은주 해외동포대표는『해외동포의 1세와 그자녀들은 제국주의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조국을 등졌으며 분단된 조국을 강제로 갖게 되었다』며 해외동포들의 조국 통일에 대한 열기는 똑같음을 피력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정리 사회부〉

국내 최초의 일본어 전문 Franchise School
제6기 개강 9월 9일 등록접수중!
『시사순다이』 일본유학집중코스
이제, 일본유학을 위한 일본어, 서울에서 끝내줍니다.
■순다이(駿台)란?
일본 TOKYO에 본부를 두고,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23개의 학교를 거느린 일본 최대의 학원그룹으로, 유학생 대상의 일본어 교육으로도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사순다이는…
• 한국에서는 유일한 유학 일본어 전문학원입니다.
•「순다이」가 개발한 프로그램과,「순다이」가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 강의합니다.
•「순다이」가 엄선한 일본인 교육전문가 들이 강의를 담당합니다.
• 일본 현지 수강시 년간 수천만원 드는 비용을 서울에서 불과 월 몇십만원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순다이」에서 파견한 일본 대학입시 전문가가 서울에서 입학상담 및 면접지도를 해 드립니다.
•「시사순다이」수료증은 일본 여러 대학에서 인정받습니다.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1일 2시간 주5 일 기초일본어, 일본인회화코스도 있습니다.
*토·일요일에도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78)2904/5
㈜시사영어사 직영
시사 순다이일본어어학원
강북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등록장소: 종로2가 파고다공원맞은편 시사영어사빌딩 신관4층

SINCE 1961
개원 30 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종각옆 TEL :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 로 얄 TOEFL / 이 재 욱 TOEFL / TOEFL GRAMMAR / VOCAB 22000 / 영 어 순 해 / TOEFL L·C / TOEFL 600 / M·A English
미국어 HEARING / 성문종합영어 / 성문기본영어 / TIME·영작문 / 영 어 회 화 (초·중·고급) / 미국인회화 / GRE 2000 / 입사문제해설반
일어문법·독해 (초·중·고급) / 일 어 회 화 / 일본인회화 / 러시아어 / 독 일 어 (초·중·고급) / GMAT 700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둘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19기 수강생모집
●개 강 : 1991. 9. 2 (8주)
●강 사 진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반 편 성 :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대)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 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TOEIC 강좌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TOEFL L.C. ●TOEFL L.C.초급 ●TOEIC ●AFKN청취 ●TIME ●Voc. 22,000 ●Word Power
●영어실력기초 ●성문기본영어 ●성문종합영어 ●영어순해 ●영작문연구 ●실전수험영어 ●영어회화(한국인) ●영어회화(미국인)
●일본어 초·중·고급 ●일본어 초·중·고급회화 ●일본어 독해 ●NHK청취 ●중국어 초·중·고급 ●중국어회화 ●스크린 중국어
개강 9월 2일 수시등록
파고다공원 정문앞 ㈜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외대학보 광고 779-2355

분단의 족쇄 깨고 하나됨을 위하여

'91 서울 범민족대회 본회담은 실제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남북해외동포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여 무산을 바라던 미제와 노정권의 허황된 꿈을 깨고 도쿄, 평양, 서울에서 비핵군축,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7천만겨레의 통일의지를 과시한 민족적 쾌거였다.
본보에서는 8월12일부터 18일까지의 이번 대회를 사진에 담았다. 〈사진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1991년 8월12일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제2차 범민족대회의 개막이 선포됐다. 경희대와 외대주변에 1만2천여명의 전경이 배치돼 봉쇄하는 관계로 7백여명만이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분단의 종착역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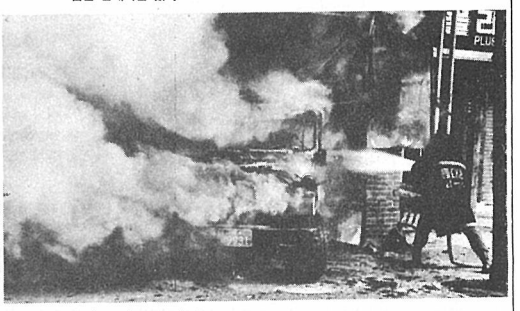
13일 저녁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남북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개막식이 열렸다. 해외동포자격으로 이은주씨등이 참석했으나 '욕탄'으로라도 넘어오겠다던 북녀의 학우들은 참석하지 못해 3만여명의 남측학생들은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다.

원천봉쇄를 뚫던 날

경찰의 대회장 원천봉쇄는 11일(일)부터 시작되어 본교와 경희대 학우 70여명은 봉쇄규탄시위를 벌였고 12일 다시 봉쇄되자 13일 오전 버스를 세워 진입을 시도하는등 「진입의 폭풍」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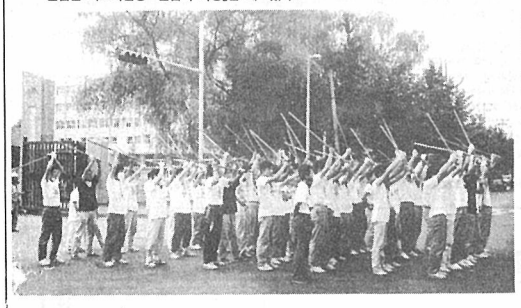
「소원」만이 아니다.

판문점에 내려온 7백여명의 북녀학우들과 전대협 대표가 끝내 휴전선을 넘지, 못했고 이들을 맞이하러간 환영단이 연행된 것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달아 열렸다.



원천봉쇄 그 결과

원천봉쇄를 뚫고 대회에 참가하려는 학우들의 대대적인 「진입작전」이 있었던 13일 오후 4시경 본교 앞의 한 문구점이, 화염병에 맞고 뛰어들어온 경찰차에 의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준비운동

범민족대회의 사수를 위해 본교 정문앞에서 전국 각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사수대들이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다.

불타는 탱고

13일(화)에 열린 통일대축전행사 중 통일문화선봉대 소속 학우들이 청년진군가에 맞춰, 춘 「불타는 탱고」는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고 경희대 노천극장을 「통일」의 열기로 가득채웠다.

통일을 위한 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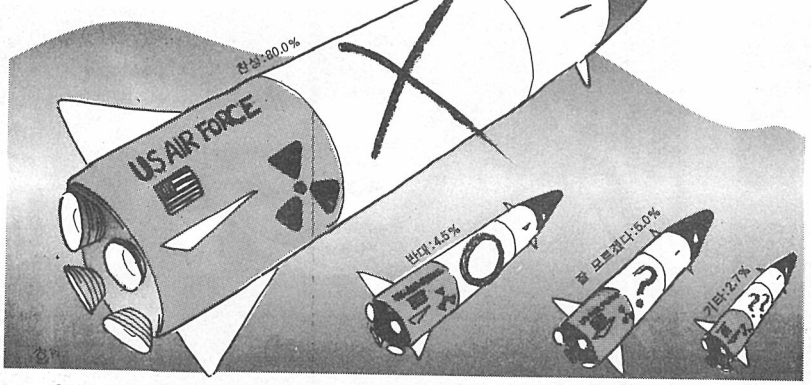
서울시경 소속 「최정예부대」까지 포함 총 1만2천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에 나선 6공화국의 반통일 정책이 이번 범민족대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반격

경찰의 원천봉쇄로 연세대와 건국대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던 1만여명의 학우들이 15일 1, 2차에 걸쳐 석계역부터 쉬지않고 뛰어오고, 4시간동안 경희대 뒷산을 넘어오는 등 범민족대회 진입투쟁의 성공은 대회장을 환호의 함성으로 뒤덮었다.

그림 돋보기 - 통일전망에 관한 의식구조 설문조사

90년대 들어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는 평화운동(반전, 반핵, 군축)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지난 7월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정부는 통일전망에 관련한 제안을 연이어 내놓고, 남북한 UN동시가입에 맞추어 통일논의가 무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전망에 대해 '91범민족 대회를 적절 치뤄낸 외대인의 견해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8월12일부터 경희대에서 개최되었던 범민족대회의 의의를 묻는 첫번째 질문에서는 불법대회로 규정하고 대회장을 원천봉쇄하는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 대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63.6%로 나타났다.

범민족연합이 국민대중 속에서 정당성을 입증받고 범민족대회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대화의 주체로 나설수 있는 장으로의 위상정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범민족 대회의 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통일대회를 원천봉쇄등으로 무조건적 탄압을 가할것이 아니라 정부당국도 함께 조력하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두번째로 남북한 UN동시가입이 통일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57.3%가 「국제무대에서 대화와 교류의 기회증가」의 이유로 어느정도는 통일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UN가입은 두개의 조선을 인정한다는 것」과 「UN의 본질적 한계」에 의해서 통일에 전혀 도움을 주기 않거나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답한 외대인도 23.6%를 차지했다.

합리적인 통일의 형태는 「남북한간의 팽배된 이질감을 좁혀나가며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와 「남북의 각 정부를 인정하면서 연방정부를 세우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호도가 각각 56.8%와 25.5%로 나타나 남북 어느 한측의 경제, 군사적 우위에 따른 독일식의 흡수통일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네번째 물음에서 특기할 점은 「통일의 과정은 민간주도가 좋다」는 의견과 비슷한 비율로 기타의 의견이 32.3%를 차지하는데 게재된 기타의견은 「민간주도와 동시에 정부의 조력」이 이상적이라고 일치를 보았다.

남과 북의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면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정부를 세워 국방, 외교등 민족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분야를 맡도록 하고, 남북의 각 지역정부는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독자성을 갖는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정부, 두개의 제도」로 정리될 수 있는 연방제를 알고 있는가의 물음에는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 문항은 학년별로 분석했을때, 「연방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와 「어느정도 알고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1학년 응답자 중 57.1%, 2학년은 74.7%, 3학년 응답자 중에서는 78.6%, 4학년은 75.3%를 차지해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비슷한 분포를 가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묻는 여덟번째 문항은 「가장 큰」이라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수응답이 두드러졌는데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이 각보기 문항의 복합요인」이 장애로 작용한다(26.4%) 「주변강대국의 분열정책」(22.3%) 「남한정부의 북한고립화와 민족분열 분위기 조장」(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홉번째 문항은 통일의 당위성을 묻는 주관식문항이었는데 「한민족, 한핏줄」이 두단어가 대부분의 응답을 대변해 준다. 어찌보면 통일문제는 우리세대에게는 출생직후부터 항상 함께 해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스스로의 통일에 대한 관점정립과 정세의 분석에 둔감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논의는 유행병처럼 갑자기 번졌다가 다시 가라앉아서는 안된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안으로 민족의 기치를 한데 모아 구체적인 전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어느 설문응답자의 말처럼 「이제는 들었던 점을 내려 놓아야 할 때」이다.

〈글 이충미 기자〉
〈그림 김호일 기자〉

설문조사 결과

질문 1:8월12일부터 경희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의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전민족의 합의하에 조국통일을 당연한 현실과제로 부각시켰다:25명(11.3%)
우리한 대최진영과 홍보부족으로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71명40명(63.6%)
새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23명(10.4%)
기타:25명(11.3%) 무응답:7명(3.2%)
질문 2:남북한 UN동시가입이 통일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27명(12.3%)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1명26명(57.3%)
전혀 도움될 바 없다:32명(14.5%)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20명(9.1%)
질문 3: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독일통일과 같이 경제적 우열에 따른 흡수통일:9명(4.1%)
남북한간의 팽배된 이질감이 어느정도 없어진 후, 점진적인 통일실현:1명25명(56.8%)
남북 각 정부를 인정하면서 연방정부를 세우는 연방제 통일형태:56명(25.5%)
기타:20명(9.1%)
무응답:9명(4.1%)
질문 4:통일의 전과정을 어느측 주도가 좋겠습니가?
민간주도:73명(33.2%) 정부주도:34명(15.5%)
어느쪽이든 상관없다:30명(13.6%)
기타:71 명 (32.3%) 무응답:12명(5.0%)
질문 5: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고 있다:14명(6.6%)
어느정도는 안다:1명39명(63.2%) 잘 모르겠다:54명(24.5%)
전혀 모르다:4명(1.8%)
질문 6: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견해는?
찬성:1명78명(80.0%) 반대:10명(4.5%) 잘 모르겠다:11명(5.0%) 기타:6명(2.7%) 무응답:17명(7.7%)
질문 7: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가장먼저 이룰 일은?
북한의 핵시설:5명(2.3%) 남북한이 동시에 핵시설:1명13명(51.4%)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64명(29.1%) 기타:13명(5.9%) 무응답:25명(11.4%)
질문 8:현재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남북한 민중들의 통일의지가 성숙되지 못함:42명(19.1%)
북한정부의 폐쇄정책과 연방제 고집:24명(10.9%)
남한정부의 북한고립화, 민족분열 분위기 조장:47명(21.4%)
주변강대국들의 국가이기주의에 입각한 분단정책:49명(22.3%)
기타:58명(26.4%)
설문조사 대상:본교생 2학20명
조사 장소:월시:서울캠퍼스 도서관, 8월23일(금)

이용다글

이 성 현
〈정외과 77학번 임수경 후원사업회 사무국장〉

기껏해야 무더위가 거의 지나가버린 지난 주말의 일이지만 그래도 요 몇년 사이에는 도통 가보질 못했던 여름철 피서를 올해는 늦게나마 같은 처지의 동료 몇가족과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상실 운운하던 마누라의 입에서 함박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유쾌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서울 근교로 통하는 길목의 그 짜증나는 차막힘에도 마냥 좋아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켕기던 커다란 짐 하나가 홀가분하게 벗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보니 그 댓가를 치르느라 혹 부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혼자서 속에서 삭혀야 하고, 쌓이는 스트레스를 애꿎은 술로 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습관화된 타성이 붙어 있다보니 본의 아니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신통치 않아도 사람은 부던하단 소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 여름에는 왜 이렇게 유난히 짜증스럽고 속여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건더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심함과 철저치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나 고리여 고리가 걸린 듯 연이어 터져나오는 악재들과 감당키 어려운 과제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시적인 전망의 혼돈림.

인간은 어느 정도 결핍됨을 느끼며 살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 노동을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과물도 얻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상식화된 얘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 절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이러한 확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망을 세워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힘들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풍부히 가꾸어 내는 기반으로, 그리고 타인과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어지는 보람찬 노동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이유는 일의 내용속에 분명한 목적의식성과 앞날에 대한 전망, 우리의 기대섞인 꿈과 희망이 녹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와 오류를 딛고 전진하는 역사

비록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오늘의 사회주의의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사회주의 전망의 무원칙한 혼돈상은 역사의 진보에 대한 회의와 일시적인 전망의 상실을 느끼게 하며 이 늦더위의 짜증스러움을 가중시킵니다.

연방해체의 위기로까지 치달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변혁, 유고에서의 유혈충돌을 동반한 민족분규등, 보다 완전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변혁의 소용돌이 긴 하나 혁명과 건설을 위해 수없이 뿌려진 피와 땀의 댓가가 고작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착취가 없는 사회, 모든 사악한 인간의 이기와 탐욕을 뿌리뽑고 오직 무한한 인간 잠재력의 발현과 이타심만이 충만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최근 돌연히 자본주의 진영은 특유의 현란한 상품경제의 번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명,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도발과 착취를 통해 불황을 모르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이후로도 한동안은 몰락에 가까운 혼돈에 따라 조성될수 밖에 없는 광범위한 사회주의권에서의 시장형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악한 이기와 탐욕적인 팽창을 멈출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선은 항상 악을 제어할 능력과 수완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주의 진영이 겪고 있는 일대 혼란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전망의 상실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진영제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징표도, 또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이상실현의 불가능함을 나타내주는 이때만 정후도 될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코 단선적으로 진보하진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 나태에서 비롯되는 사악한 손길의 위협을 느껴가며 때로는 좌절도 하고, 회망쉬인 기대에 대한 배신감도 곱씹어가며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인류진보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흐트러진 정신을 올게 곧추 세워내고, 나태의 본질을 정확히 목도한 채, 정확한 전망과 계획 속에서 지구전적으로 당차게 밀고 들어갈 때에 궁극적으로 선은 악을 제어하고 산노동이 죽은 노동을 몰리치며 모든 위선과 기만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승리의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오로 일대 분발을 촉구하는 징표로 받아들입시다.

다른 대학 에선

건국대학교

8월초부터 부정입시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는 8월22일(목) 간부대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방안모색에 들어갔다.

방중의 「교직원총회」와 「공청회」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과문발표에 그친데 비해 이번 간부대회에서는 책임자처벌과 학생들의 학사행정 참여보장, 부정입학 재발방지 근본대책과 제도적 장치등을 요구하며 8월말에 파, 단대별 분임토의를 거쳐 사안들을 공유, 9월초에 중앙에서 결집해내고 9월10일 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의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우려한 총학생회는 사건의 심각성을 재인식 시키기 위한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부·학사참여등 학자부에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 총학생회는 89·90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오는 30일(금) 「민주졸업식」을 거행한다.

당시 유급당했던 2백30여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이번 졸업식은 16일(금)이 예정일이었으나 학교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학생들의 준비미비로 30일로 연기됐다. 이날 준비를 위하여 각과와 동아리에서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신발송과 전화연락을 통해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소규모로 환송회도 열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지난 학기 학자부의 성과를 상충고심에 치중한 간부중심의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학내에 팽배해 있는 피해의식을 극복, 「민주졸업식」을 시발로 학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중앙과 연계시켜 조직적인 지반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비둘기칠판

이문별

■전국 노어과 대동제

전국 노어과 연합회(전노련) 건설의 해를 맞아 2비3일 동안 전국 노어과 대동제를 열 예정이오니 노어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날짜:8월31일(토)~9월2일(월)
·장소:고려대(숙소는 우이동 백운장·사슴)
·회비:10000+α(2박3일간 숙식)

〈한마음 러시아어과 학생회〉

■팬플루트 강습 안내

·대상:전 외대인
·강습시간:매주 목요일 6시, 토요일 11시
·강습비:무료
·장소:노천극장 지하 동연회의실

〈외대 팬플루트반 SYRINKS〉

■6·3을 딛고 자주학원 건설로…

6·3이후 우리는 정부와 학교당국의 탄압속에서 4명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500여 일어과 학우들의 삶의 터전인 학생회를 외해하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주외일 학생회는 말없이 지지·연대의 박수를 보내는 수많은 학우들의 힘에 의해 다시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힘있는 2학기 사업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6일 개강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 힘있게 「제적철회, 자주학원 건설」의 투쟁을 펼쳐 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일본어과 학생회에서는 구속수배자의 법정싸움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22-436-05-001491 박주영)

〈일본어과 구속수배동지 구출을 위한 후원사업회〉

왕산골

■힘이 됩시다

지난 6·3사건 이후 우리의 동기, 후배, 선배들이 힘겨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담뿍 배인 사연들로 이들에게 다시금 커다란 힘과 투경의 열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성동구치소-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전갑기(경영3) 수번 520번, 전동중(일어3) 150번, 김용규(신방4) 420번, 박상옥(경제4) 920번, 오춘일(행정2) 619번, 장우성(정외4) 220번, 최원일(법3) 620번, 박광렬(영어3) 720번, 이용규(독교4) 공숙관(법·3)

〈제25대 통일단결 총학생회〉

■개강맞이 떡잔치개최

총학생회에서는 9월12일의 전군식 뒷풀이 「개강맞이 떡잔치」에 쓰일 쌀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과에서는 9월11일까지 쌀을 모아 주시고 떡잔치에도 많이 많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제13대 자주혁신 총학생회〉

■참립 10주년 기념
Home coming Day 개최

·주최:동양학대학 마인어과 학생회
·일시:9월15일(일)12시
·장소:용인캠퍼스 대운동장.
·차편:학교차-이문동 10시
-잠실 10시, 10시 30분
일반버스-100-1 잠실

〈마인어과 학생회〉

■제3회 임수경 통일문학상 모집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예술시업을 고양시켜 전대협 부분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3회 임수경 통일문학상을 모집합니다.

·주최: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응모내역:시, 소설, 생활 글, 문예과학.
·마감:10월31일
·심사:문익환목사
·발표:11월 초순
*통일의 열기를 몰고 온 통일선봉대 일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2대〉자주혁신 총학생회〉

향우회

(이문)

남해 향우회

·때:8월30일(금) 오후5시
·곳:깡통
·회비:5천원

비둘기는 옛날 프랑스군의 위기를 구해주면서부터 구원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외대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외대 학우 여러분/
학우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사연들을 비둘기칠판속에 띄어 보내는 건 어떨까요?

비둘기칠판은 아주 자그마한 사연들도 힘찬 나래짓으로 성의껏 배달해 드립니다.

광고신청: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12호)

〈비둘기칠판은 여러분의 광고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학원안정화대책」의 음모를 밝힌다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학안대」

심층분석

학생회활동·학생운동 규제한「학안대」 학내 제 민주세력 결집으로 분쇄해야

6.3투쟁이후 여론공세를 필두로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학내 학생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통제장치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교육부는「학원안정화 대책(이하 학안대)」을 내세우며 학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

85년 5공화국 말기에「학원안정법」으로 학원 탄압을 가했던 것처럼 6.3투쟁이후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여 여론을 앞세워 학원탄압을 집요하게 감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5일(수) 78개대학 총·학장이 모인 자리에서 7일(금)「학안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7월4일(목)~6일(토)엔 대학교육협회 주최로 1백18개 대학 총·학장회의가 열렸는데 이념교육의 강화, 학사행정에 대한 결정방식의 다원화등「학원 정상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10일(수)~12일(금) 전국 학생처(과)장, 교무처(과)장 회의를 개최, 6.5총·학장 회의결과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대한 토론과 대학별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내오기로 결정했다.

「학안대」의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세력화하는 학생회 활동지양—불법조직인 전대협과의 연계차단, 학생회비의 운영권 자금화 방지(사용목적 사전승인),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 강화(일정 성적 이상자에게만 후보등록), 학생회에 의한 영리행위 근절(매점, 자판기 운영권 완전 회수), 장학금 지급의 변칙운영 불허(일정 평균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 「대학교육협의회」내에 총장·교수를 망라할「학원정상화 위원회」설치—△면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외부단체의 학내시설·장소 불법사용 불허, 불순 학내유인물 플랭카드 배포및 게시 금지, 학보·교지의 편집권 완전 회수, 총·학장의 허가없는 학내기숙금지, 학내 질서 경비를 위한 대학청원경찰제도 도입—△학칙개정을 통한 학사관리 엄정—학사제적제도 부활, 학사유급제 도입, 학생회·각종 동아리활동의 건전화를 위한 학칙개정—△교권확보—학생을 선동하는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 필요, 신규임용·승진등 요구 강화, 전체교수 명의를 게재한 성명서 발표 자제—등의 내용이다.

이것은 첫째,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과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의 일환이다. 3당 합당이후 내각제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음모를 꿈꾸며 추진하여 오다 91년 상반기 투쟁으로 인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학생운동을 탄압하지 않고서는 장기집권의도가 관철될 수 없다는 계산아래 6.3을 빌미로 학생운동의 근거지에 대한 내용적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데 특히 6.3이후 교육부가 장악하고 있는「전국 총·학장회의」를 매개로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학원탄압의 지침서「학원안정화대책」〈사진:한겨레신문〉

둘째, 87년이후 학원자주화투쟁의 성과물로 축적되고 있는 학사행정참여, 학원자치의 중요성, 학내 민주대연합의 기초인 학원3주체 (교수·학생·직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무너뜨리는 작태이다.

교수직선에 의한 총장선출, 등록금의 합의인상, 교수임용과 학사운영에 대한 교수·학생·직원의 참여는 학원 자치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정권의 학원장악구도를 차단하기 때문에 정권유지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셋째, 학원자주화투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이다. 87년이후 학자투의 내용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으며 영역또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권은 계속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자기 학교의 주인으로 서겠다는 주체들의 요구나 단결을 막는다는 것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등록금투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에 고제(신입생들의 4년치 등록금을 미리 책정, 입학전에 예고함으로써 연차적으로 등록금 소요를 막아보고자 하는 조치가 검토중이고 그동안 학생참여가 이루어진 등록금 책정에 대해 학생을 배제하고 학교자체의 등록금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이다)는 이를 잘 증명해준다.

넷째, 사립학교법등 교육관계악법의 개악을 예고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등 제반 교육악법을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 가속화할 것이다. 즉, 교수·학생·직원의 권리 침탈과 특정계층의 권리 남용을 유발하여 주체간 싸움으로 만들어 정권 유지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

다섯째, 교육부의 통치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의 교육부의 직접적인 통치방식에서 교원단체(한국 교총, 한국 교육협의회, 전국대학연합회등)와 대학당국 또는 교수를 통한 대리통치방식을 취하며 배후조정의 입자에서만 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원안정화대책위 구성을 통해 학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나 모든 문제는 학원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표명을 이를 잘 증명한다.

이에「학안대」음모를 분쇄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대학구성원 3주체(교수·학생·직원)가 어느때보다도 단결하여 대학의 민주대연합을 구축해나가는 길이 시급히 요청된다.

〈김상권기자〉

◇용인캠퍼스 농활평가

1개과 1주체 설정 필요

1. 평택에서 여주로의 지역이전 배경

전국(중앙)과 지역에서 민주연합전선 조직을 강력히 꾸려내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농과 전대협차원의 지역재편논의과정속에서 용성총련은 잠정적으로 여주, 이천지역으로 전면적인 이전이 제고되었다. 또한 경기동부지역에 민주연합전선을 강력히 구축하는 것에 의미와 목표가 있다. 경기동부지역은 용인, 성남, 여주, 이천, 광주를 포괄하는 지역이며 성남을 제외하고 각계각층 연대사업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용인캠퍼스가 경기동부지역내의 민주운동의 강화와 농학연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2. 사전준비사업

1) 사전교양사업

사전교양및 분반활동은 팀단위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각팀의 자립, 자활력을 높이는 자주성고양의 터전이다. 그러나 팀단위 자주성에 기초하여 사전교양사업을 전개한 농활대는 언협(학보사,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방송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것은 학생회가 학생대중간의 의견수렴통로의 부재와 상반기투쟁을 올바로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체적인 농활사전작업이 수행되지 못했다.

2) 사전답사

이번 여름농활은 봄농활때 지적된 답사의 문제점이 일정 정도 극복되어 졌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농활이 팀단위의 자주성에 기초한다고 했을때 여름농활 답사의 문제점은 인문대, 언협을 제외하고 팀장들이 주체적으로 결합하지 못했으며 특히 분반활동 주체들의 답사가 거의 없었다. 모단대는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농활주체 혼자 4개 마을을 답사하는 비조직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답사도 내용성의 대부분이 숙소를 정하는 것과 '여주군 농민회(전준위)와 학생회(이하 농—학)의 연대정도에 머무르는 초보적인 수준을 답습했다. 이는 답사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에 기인할수 있다.

3. 본활동

1) 농활기간

이번 여름농활은 7월1일(월)~7월11일(목)(9박10일)까지 여주군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여주지역은 1개읍 9개면으로 편재되었으며 농활대가 들어간 지역은 1개읍 5개면을 포괄하여 14개마을에서 농활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지역을 이전하여 농활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미숙한 점이 노정되었으며 더욱 커다란 문제는 사전준비과정의 미비와 지난시기 평택농활처럼 면단위 농활이 아닌 군단위 농활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점철되었다. 이후 농활사업에서는 군단위 위상정립과 치밀하게 사전준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안게 되었다.

분반활동에 열중하는 마을 어린이들

2) 근로활동

대부분의 농활이 그러하듯이 근로활동은 무리없이 진행됐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농활대가 적게오는(상주농활대: 1백 50명, 부분농활대:1백명, 전체:2백50명) 관계로 인하여 근로활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활은 사고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본활동 수행시 농활대를 정확히 꾸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과제이다.

3) 분반활동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여성농민반, 학생반, 아동·탁아반을 제외하고 분반활동이 무게실린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지못했다. 이번 분반활동의 경우, 지난시기 분반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뒤집어 업는 즉, 학생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농민회에서 준비를 하고 학생이 따라가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준비부족이 선차적 원인이지만 농—학이 분반활동에 대한 사전논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분반활동의 경우는 사전준비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며, 농—학이 공동으로 준비를 해야 내용성을 채워 나갈수 있다는 교훈을 받아안게 되었다.

4. 대안을 중심으로

연대사업은 조직—조직, 사람—사람과의 사업이다. 따라서 '91여름농활을 준비하면서 애로점은 각 단대별로 주체를 특화시켜내지 못한 것과 과학생회에도 농·학연대사업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을농활과 겨울농활을 전투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여름농활은 1개과 1개마을 농활수행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주체를 튼튼히 세운다면 농활사업이 대중화를 전면적으로 학생회사업으로 받아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학생회강화의 방도측면에서 1개과 1개마을 농활수행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각 단위별로 농—학연대사업주체를 내와야 할 것이다.

〈제 12대 총학생회 연대사업부 농민분과장 조현식〉

빛고을 맛사지

○…한국판 신약성서의 부활을 꿈꾸는 무리 있어 민초들 아연실색하고 있는바.

대본인즉, 출5공기(出五共記)로 시작하야 5공계시록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는데, 장세동복음에는 창조적 신당이 정치적 불신을 어쩌구 국민의 기대에 저쩌구라고 지껄여놨다든가.

금뺏지 달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5공나으리들, 정 나오고 싶다면 광주영령에게 맛사지 받을 준비를 하고 2천장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마련해야 할것임.

○…속보!!「헌법 제19조 사상·결사의 자유」8월20일자로 폐지.

민중의 아들 박노해씨에게, 빨갱이물을 사방팔도에 퍼뜨렸다며 국가보안법 수괴죄의 올가미를 씌워 한반도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공안검사의 일언(一言)때문.

사약만 내릴줄 아는 공안검사, 제 맘에 들지 않으면 숙청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나쁜 국가라고 국민학교때 배웠어요.

○…총장실에서는 몇달전 계란 맞고 가신 분에게 크게 배운 바가 있는지, 훕산들을 경악케한 발표를 했는데.

학원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대학당국측의 재미있는 망상을 살펴보면, 6·3투쟁에 관련된 애국훕산들을 제적시키고, 성적표에 불법무기를 대량(?) 소지하면 경고를 주며 상습범은 제적시키겠다고.

학원의 안정은 제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대학당국은 인지하시압.

○…이 나라 보통사람들은 전쟁준비에 돈 아까운 줄 모르는듯.

세간인들은 북한의 UN가입 소식에 국방비 감축을 외치는데 유독 이 국방나리만 북의 위협 운운하며 돈을 더 들이겠다니, 보통 국어 사전엔「국방」이「나라친다」로 나와 있나?

나라 지키는 돈이 아니라 북에 위협주는 돈이 필요했던 보통사람의 진심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오.

○…한민족의 정기가 뿌리채 뽑힌 오욕된 일이 이문벌에서 생겨, 지나가는 이 마다「이럴수가!」라며 원성이 높아.

지난 18일「민족해방대장군」과「조국통일여장군」이라 새겨진 장승의 허리가 톱에 잘려 이제는 담배꽁초를 받아먹는 휴지통 신세가 된 것.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조국의 하나됨을 원치 않는 자여, 양(洋)코쟁이 집으로 가도록 팍팍 밀어줄께.

매국노

* 극동정유의 마스코트 백곰
크린에너지를 추구하는 극동정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총명하고 청정한 동물의 상징인 북극의 백곰을 형상화,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 및 친근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극동정유 정이사의 책상에는 색다른 그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팽이 —
이 팽이그림은 그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8년전 국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시절.
극동정유 부산공장을 세울때부터 이 그림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금사정은 말할 수 없이 쪼달리고
외국차관도 거의 조달이 안되는 상태에서
순수한 우리자본만으로 출발한 공장 건립은
이만 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산업 민영화를 처음으로 주도하는 회사의 창립멤버라는
보람으로 이겨내기엔 난관도 대단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자체기술과 인력으로
해결해가는 와중에 토사가 무너져 인부가 다치고
풍랑으로 하역중의 자재가 떠내려가 모두가 실의에 잠겼을 때,

그는 말없이 책상머리에 이 팽이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팽이는
그에게 쉴새없이 채찍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이제는 안정감있게 돌아가는 팽이처럼 회사의 기반이
탄탄해진 지금,
정이사는 자신의 무기력과 나태를 채찍질한 것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이 한마디였다고 털어놓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일하라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극동정유주식회사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223 (세양빌딩) 대표전화: 735-6300
사서함 C.P.O. 269 TELEX: K26245, K33112 FAX: 733-5481
자매회사: 극동도시가스(주), 세일석유(주)

조국통일 민중이 중심되는 민족의 부활

하반기 통일운동의 과제

8월은 「통일」의 불멸더위로 시작되어서 역시 「통일」의 늦더위로 막을 내린다. 지난해 베를린 3자회담을 통해 탄생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의 결성이후 올해 처음으로 범민련이 주최하는 서울 범민족대회(이하 범대회)의 열기는 바로 그 「통일 늦더위」의 온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전역을 달구어 놓았다. 그러나 8월 이후 얼마만큼 그 「온도」를 유지시킬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년 제기되어 왔고, 올해 역시 그 지속성의 과제는 하반기 조국통일무쟁 (이하 조통투쟁)의 뚜렷한 원칙과 정확한 정세전망 속에서 구체적으로 받아 안아야 할 당면 현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조통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하반기 정세를 객관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에 있어 무엇보다고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9월 18일 UN총회를 통한 남북한 UN동시가입의 실현인 것이다.

하반기에는 남북 UN동시가입과 정기국회등 통일운동에 있어 유리한 정세가 예상된다.

자주적 교류·지역 투쟁 활성화로 통일의 대중성 확보

비핵군축·법률안 제정 등 활발한 실천투쟁 전개

남북한 UN동시 가입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많은 난관을 초래할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통일운동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이점도 내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핵평화군축 분위기 조성과 불가침 선언 채택,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체결등을 들수 있다. 이는 UN이라는 국제무대 위에서 두개의 국가라는 실체를 인정받으면서 더이상 기존의 긴장상태를 유지할 물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UN동시가입을 계기로 이전보다 더욱더 공세적인 통일운동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며 그것은 또한 상반기에 전대협을 중심으로 벌어왔던 한반도 비핵군축 및 불가침 선언 채택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보다 호소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9월중 개원될 정기국회로의 적극적 결합이다. 이는 지난 범대회 기간중에도 여러차례 제기된 실천투쟁의 한 필요성을 범국민 서명운동의 실질적인 성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할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난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정치적 쟁점들로 인해 조통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통일운동으로 매진할수 있는 계기가 놓여 있다. 즉 하반기의 객관적 정세는 조통투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때문에 이제는 통일운동의 명확한 자기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것은 올해 조통투쟁의 핵심적 관건이라 할수 있는 비핵군축과 전민족적 통일방안 합의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것임은 자명한 논리다.

하반기 조통투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것으로서 첫째는 각 단위의 실정과 역량에 맞는 사업 설정이다. 학생운동의 경우 개강을 계기로 이번 범대회의 의의와 성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속에서 그 성과물을 토대로 각 캠퍼의 주체역량에 맞는 실천투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의 기만적 통일논의와 창구독점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할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자주적 교류투쟁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야 한다.

둘째, 「대중속에서, 대중에 의한 대중 중심의 사업」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구체적으로 통일투쟁의 대중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근거지 위주 즉 각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 민중들에게 사활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공동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군기지 이전반대투쟁을 주민과 함께 벌인다든지, 핵투기 철거를 요구하는 반핵평화운동, 주한미군 철수등을 들수 있다.

세째, 통일방안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의 확산이다. 올해 범대회를 통해 대중적으로 첫 물꼬를 튼 「연방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중 공유작업을 통해 합의의 근거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더이상 대중의 호응없는 외로운 싸움이 아닌 대중속에서 대중과 함께 살아숨쉬는 좋은투쟁의 전개가 하반기 정세의 절곡을 극복하고 민주정부 수립의 대중적 토대를 확립할수 있다는 명확한 원칙의 전지가 어느때 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현숙 기자)

분단조국을 기워내는 통일의사

기사의 눈

범민족대회 기간중인 지난 8월12일(월)~16일(금) 동안 경희대 건물 곳곳의 이동진료소에서는 반핵평화진료단원 3~4명이 모여 부상당한 학생들을 치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주로 이들은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계열 청년학생」 100여명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소속 약사와 기타 뜻 있는 의사, 한의사, 약사들로 「반핵·평화」를 외치며 범민족대회에 동참했다.

주로 환자들의 대부분은 범민족대회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시수대원들인데 최루탄 알레르기, 화상, 외상, 기타 감기등으로 하루 일백여명꼴로 이동진료소나 중앙진료소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대회 기간 동안에 솔직히 저희들이 한 일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커다란 힘이 되어 주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수대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옆에서 그들을 지켜 보아 주고, 그들의 뒤에는 저희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커다란 힘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동네약국에서 학생들의 시위장면을 보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들을 도우며 같이 있다는 사실에서 통일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제 일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회 기간 중의 보람을 피력하는 「건약」 소속의 송약사는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함빡 머금는다.

『한번은 한 학생이 심하게 부상을 입고 업혀 왔는데 얼굴에서 상반신까지 온통 열상을 입고 피로와 하더라구요. 그 학생이 피로와 하는 모습에 왜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는지 정말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왔습니다』라며 현재 이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는 남미숙씨도 한마디 거든다.

최루탄 알레르기로 붉게 부어오른 목에 거즈를 붙인 채 진료소 앞을 나서며 『감사합니다』라고 달려가는 남학생과 다급하게 『조심하세요』라고 외치는 30대초반의 약사, 몸싸움에서 찢어진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내고 소독해 가는 진지한 얼굴의 여대생.

이들의 얼굴에선 무더위의 흔적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

이 시대의 가장 위급한 환자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라며, 분단조국의 끊어진 허리에 엉켜 있는 피고름을 짜내고 하나의 허리를 기워내는 통일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들의 분주한 몸놀림에서 통일조국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고연미 기자〉

외대만평

철옹성 외대, 언젠간 먹고 말거야

본교 상반기 조통투쟁 평가와 그 전망

실추된 명예, 통일로 일어선다

대중적 토대구축과 조직적 기반 미약

북한학술답사 투쟁등 실정에 맞게 전개

91년 서울 범민족대회는 그동안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운동의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또한 전민족적 통일운동의 구심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의 결성으로 인해 이제는 통일운동이 발전되었다는 역사적인 쾌거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통일운동이 하루가 다르게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반면 본교의 경우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 위원회」 (이하 학추위)를 중심으로 한 단위 캠내 조국통일투쟁(이하 조통투쟁)은 여전히 대중적 토대구축과 그 조직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이다.

본교 서울캠퍼스는 학추위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족되지 못한 건설준비위원회 상태이다. 6·3사건 이후 그동안 「학추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반기 사업을 추진해오던 김의연(서양·서반아어 4)군이 6·3사건 관련 수배로인해 그 준비 주체가 상실되면서 곧바로 사업을 이어나갈수 있는 주체를 세워내지 못했다. 따라서 상반기 사업의 주된 내용이었던 「학추위」 건설을 위한 조직적 기반 강화가 다시금 주춤 거리는 상태이다.

제1기 통일학교 준비모임의 주체였던 박재훈(상경·경제과 2)군은 『상반기 조통투쟁의 성과로는 북한영화상영이라든가 통일학교등을 개최하는 가운데 어느정도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것은 미흡한 성과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대중성확보에 있어 미비한 성과밖에 얻어낼 수 없었던것은 밑으로 부터 통일운동에대한 대중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또한 상층지도부의 조직역량 미비로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캠퍼 또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그 조직기반의 미성숙으로인해 사업기조를 잡을때 상층부논의로만 흐르게 될 우려가 있고 단대나 과학생회로의 연결통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이후 조통투쟁의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것은 상반기 사업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대중성확보와 조직역량강화가 선결과제라 할수있다. 먼저 대중성 확보의 문제는 본교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원어편지교류투쟁, 비핵·군축서명운동은 학우대중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주교류투쟁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질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며 들째, 조직건설의 문제는 각 단대·과 「학추위」 건설을 목표로 하부단위의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한편 제2기 「학추위」를 맞는 용인캠퍼스에서는 상반기 조통투쟁의 과정속에서 주체성부위가 구성된것과 또한 제1기 「학추위」 때보다는 주체를 명확히 세우는 가운데 사업 기조를 내왔고 대다수 「과학추위」의 건설에따라 통일운동의 전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고 평가 내릴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대·과 「학추위」까지 건설되었음을 불구하고 교육내용의 부재로인해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으며 과학적인 지도의 내용을 중앙단위에서 내오지 못함으로써 통일운동에 대한 관념성을 학우대중들로부터 극복시켜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임수경대표의 방북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어느캠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우대중들의 요구에 충분히 북부하지 못했으며 대중성을 담보해 낼수 있는 사업기조를 잡아 내오지 못했다는 것이 상반기 사업진행의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캠내에서 행한 구체적 활동으로는 3월말 「전대협 통일일꾼 전진대회」에 참가하여 주체들에게 통일에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임수경대표의 방북 2주기를 맞아 임진각 방문투쟁을 힘차게 벌어나갔다. 『2학기 라고 조홍재(인문대 학추위장)군은 말한다. 인문대 「학추위」 사업중의 하나인 북한학술답사 투쟁은 10월말쯤의 실행을 계획으로 잡고 지금은 운영위와 학추위의 실무회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강후 열리는 정기학생총회에서는 모든 학우대중들과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캠의 상황을 분석해볼때 양캠 공통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첫째,조직역량의 강화와 들째,사업에있어 대중성의확보, 그리고 학우대중들을 통일에 대한 관념성으로부터 탈피토록하여 보다 과학적 조통투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다. 백제훈군의 말처럼 조국통일투쟁은 상층부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논의 되어질것이 아니라 하부단위에서부터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때 비로소 대중성확보를 이룰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조직적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선도투쟁보다는 각 캠퍼 실정에 맞는 자주교류투쟁과같은 비교적 학우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는 사업부터 실행해 나가는 것이올바른 대중성확보의 첫걸음이며, 또한 상층 지도부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할때만이 상층과 하부단위의 사업이 올바른 내용성을 담보하고 조통투쟁의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할 수 있을것이다.

〈권동순 기자〉

통일염원 범민족대회 개최

원천봉쇄를 뚫고 본대회장 3만여명 운집

서울캠, 하루 평균 네차례 이상 경찰과 충돌

지난 8월12일(월)부터 18일(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경희대 노천극장에서는 「'91 서울 범민족대회」가 개최, 「비핵군축·연방제통일」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당국의 경희대·본교에 대한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3만여명의 학생, 재야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강행됐다.

12일 오후8시 경희대 노천극장(본대회장)에서의 대회개막식을 시작으로 본행사에 들어간 이번 대회에서 백만학도의 통일의지를 결의한 이철상(전대협의장 권한대행·서울대 총학생회장)군은 『이번 대회를 성사시킨다는 것은 7천만 겨레가 한장소에 모여 통일을 논의하며 대회를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며 대회사수결의를 다졌다.

또한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이하 범추본)을 대표해 대회 개막선포문을 낭독한 김희선(범추본 부의장, 대회 준비위원회 실무간사)씨는 『분열은 미국이고 통일은 애국이라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며, 기어이 90년대에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결심은 오늘 그 결실을 맺고 있다』며 『외세에 추종, 민족 절대절명의 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이 범민족대회를 방해하는 책동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13일(화)오전 8시 「범민족대회, 청년학생축전 북측 참가자 환영단 파견 및 대(對)국민 가두서명 출정식」을 가진 범추본은 판문점으로의 강행이 정부의 불허로 인해 무산되자 다시 경희대로 들어와 오후부터 「환영단 폭력연행 및 청년학생축전 참가 불허 규탄대회」를 갖고 경희대와 본교 정문에서 경찰과 충돌, 본교 정문 앞에서 전경 운송버스 2대, 페퍼차량 1대, 짚차 1대가 전소됐으며 그로 인해 민가로 불이 번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후 10시경 부터 경희대 본회의장에서 전행된 전대협·조선학생위원회 「청년학생통일대축전」에서는 약 1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 지구총련의장과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의 입장, 제5기 전대협의장인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의 구속전의 활동모습에 대한 영상소개, 구속된 역대 전대협의장 어머니들의 투쟁결의 등이 진행됐다.

다음날(14일)오전 7시까지 계속된 「제4회 전국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에서는 대회장을 가득메운 학생들의 큰 호응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5개부문에 걸쳐 시상된 이번 대회에서 으뜸상으로는 전남대 사회대 소속 「한울림」이 「통일아리랑」이라는 곡으로 수상을 했다.

14일(수)오전 8시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 의장 이국형(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군의 사회로 진행된 「통일학생축전 정치회담 남측 결의대회」에서는 정치회담 의제로 △통일방법의 문제 △남북 불가침, 비핵지대화 △대중적 통일교류 △전대협·조선학생위원회·해외 청년학생회 연대기구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후 11시20분부터 시작된 「'91 서울범민족대회」 전야제에서는 1부 순서로 「'91년 범민족대회 성사 및 '95년 통일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각계각층의 결의를 듣는 순서에서 김희선씨는 총결의를 통해 『민주는 민중의 부활,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며 『대회성사를 가로막는 노태우는 반통일세력 반민족적 세력』임을 명백히 밝혔다.

2부 순서로 진행된 범추본 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문화제」에서는 대금연주가 전주로 나오는 「백두산」노래에 맞춰, 1백여명의 학생들이 무대 앞 까지 나와 춤을 추기도 했으며, 특히 광풍중물패가 등장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15일(수) 「'91 서울 범민족대회」는 오전부터 경희대와 본교를 원천봉쇄한 경찰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오후 늦게까지 공방전이 계속됐으며, 북측, 조선학생위원회 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한 판게로 자족적인 문화행사만이 진행됐다.

16일(목) 「청년학생 통일 대축전」에 대한 약식폐막식을 가진 학생들은 서울지역에서 소규모 가두선전을 가진 후 각 지역으로 해산, 18일 경희대 본대회장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범민족대회 폐막식을 연세대로 옮겨 오후 4시 학생회관에서 약식폐막식을 가졌다.

하루 평균 네 차례 이상의 대규모 충돌을 빚은 본교의 경우, 경희대로의 진입이 어려워 대회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본교를 이용, 본 대회장인 경희대보다 경찰과의 충돌이 잦았다.

제1기 정치선동학교 개최 통일관련 토의 강연 진행

서울캠퍼스 정치선동학교 공동준비위원회 주최, 「제1기 정치선동학교」가 8월19일(월)부터 26일(월)까지 일주일간 평균4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원소강당(6104)에서 개최됐다.

△19일 「입학식」 △20일 「전술론의 과학화를 위하여」 △21일 「다시 또 적들과 결전을」 △22일, 23일, 24일 「파괴하라/ 폭로하라/ 자본의 질서」 △26일 「졸업식」을 진행, 5일간의 강의와 함께 참가자들은 통일문제 관련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가졌다.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육 교포, 외국인대상 실시

용인캠퍼스 국제교육원에서는 지난 6월25일(화)부터 8월9일(금)까지 제외 교포학생 하계교육, 한국 학술 진흥재단 외국인교육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외국인 교육등 세부분으로 나뉘어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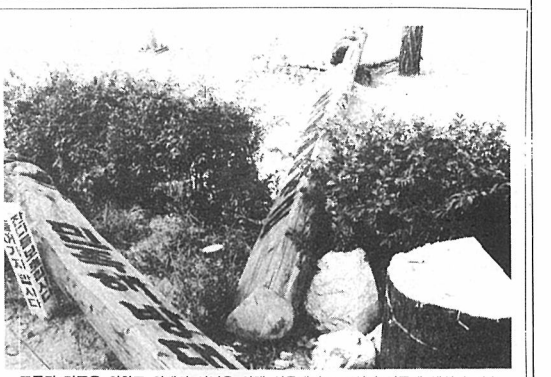
이번 교육에는 재외 교포학생 1백13명과 순수 외국인 44명이 참가, 어학과 더불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역사·교양을 실시했다.

용인대생협 어학연수 방중 실시

용인생활협동조합(이하 대생협)은 「제3회 하계어학연수」를 교양학관에서 1백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15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가졌다.

이번 하계 어학연수에 대해 대생협 어학연수부장 최승현(영어과·3)군은 『방학중에 나타나는 학원 공동화 현상을 극복, 외국어 대학이라는 본교의 특수성을 살려, 저가로 학내에서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및 공동체 생활마련을 위해 준비 되었다』며 『이번 어학연수는 어느때와는 달리 양캠퍼스 학생뿐만이 아니라 타학교 재학생까지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의의및 평가를 밝혔다.

연수생들은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인 7월13일(토) 모현학사에 입사해(1·2차 어학수준평가 및 사전준비교육을 받았으며, 회화 6개반, 듣기 6개반으로 편성, 오전 9시30분부터 1시20분까지 각각 2시간 회화, 듣기 강의를 가졌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외대의 안녕을 위해 서울캠퍼스 도서관 입구에 세워진 장승이 18일(일) 새벽5시경 누군가에 의해 베어진 채 쓰러져 있다. 〈이재원 기자〉

범민족 하나되기 통일학교 개최

비핵군축·연방제 합의통일 논의

「95년 통일실현·반전반핵·연방제 통일·범민족적 연대와 연합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제1기 통일학교」가 지난 8월8일(목)부터 9일(금)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대학원 소강당(6105)에서 개최됐다.

학생대중과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장으로서 처음 열린 이번 통일학교는 첫째날, 한정렬 강사의 「95년 통일실현·반전반핵·연방제 통일·범민족적 연대와 연합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제1기 통일학교」가 지난 8월8일(목)부터 9일(금)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대학원 소강당(6105)에서 개최됐다.

둘째날에는 김홍기 강사를 초청, 이산가족 찾기 사업의 기반인 「자주적 교류투쟁」 강연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마치며 총학생회 학술부장인 박윤정(동양·중국어4)양은 『고조되어 가는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실천의 한 고리로, 비록 미비한 준비였지만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실천투쟁까지도 할수 있는 통일학교를 마련하겠다』고 첫 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용인·성남지구 통일학교」도 용인·성남지구 학생 추진위원회 주최로 8월10일(토)부터 12일(월)까지 용인캠퍼스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비핵군축, 연방제 통일」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과 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통일염원 성남시민노래 한마당」이 개최되어, 범민족대회로의 관심과 열의를 이끌어 내고 참여를 고조시켰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대기련, 총회및 출범식 개최

최원일군 구속에 강경 항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은 지난 7월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전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제8기 전대기련의장인 본보 전편집장 최원일(법·법학3)군의 폭력연행 보고 및 규탄대회에서 8백여명의 전국대학신문기자들은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과 정권의 공안통치를 규탄했다.

둘째 날에는 분임토의를 가졌으며, 셋째 날인 「전대기련 9기 해오름식 및 범민족대회 취재 공동기자단 발대식」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분과건설 및 강화사업 △기획광고 및 건설 △광고·우리 것 만들기 운동 △제도언론 전폐투쟁 △전대협·민주언론단체와의 연대사업 △전대기련 기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대회를 통해 의장인 박군은 『각 기련별 사정에 맞는 사업과 전대기련 하나됨에 힘쓰겠다』고 인선소감을 밝혔다.

총회 및 제9기 해오름식」을 갖고 제9기 전대기련의장에 건국대학교 편집국장 박재선(불어불문·3)군을 인준했다.

첫째 날에는 각 지역기련별로 사전 결의대회를 가진 후 제8기 전대기련의장인 본보 전편집장 최원일(법·법학3)군의 폭력연행 보고 및 규탄대회에서 8백여명의 전국대학신문기자들은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과 정권의 공안통치를 규탄했다.

둘째 날에는 분임토의를 가졌으며, 셋째 날인 「전대기련 9기 해오름식 및 범민족대회 취재 공동기자단 발대식」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분과건설 및 강화사업 △기획광고 및 건설 △광고·우리 것 만들기 운동 △제도언론 전폐투쟁 △전대협·민주언론단체와의 연대사업 △전대기련 기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대회를 통해 의장인 박군은 『각 기련별 사정에 맞는 사업과 전대기련 하나됨에 힘쓰겠다』고 인선소감을 밝혔다.

6·3사건 관련 10명 구속

검거선풍 계속될 양상

6·3외대사건과 관련 수배를 받아오던 16명 중 이번사건을 주도 적극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상경대 학생회장 박상옥(경제·4)군 등 6명과 사진판독 등으로 추가혐의를 인정받은 정책과학대 학생회장 장우성(정외·4)군 등 4명을 비롯 모두 10명이 정원식총리 폭행과 관련되어 연행, 구속됐다.

현재 구속된 학생으로는 △사범대 학생회장 이용규(독교·4) △법대 학생회장 공승관(법학·3) △서양어대 부학생회장 박광렬(영어·3) △경영학과 과회장 전갑기(경영·3) △본보 전편집장 최원일(법학·3) △전동준(일어·3) △김용규(신방·4) △오춘열(행정·2)군이다.

박상옥군 등 10명은 현재 성동구치소(서울시 가락동 162번지)에 수감중이며 공판일은 미정이다.

15차 모의 유엔총회 10월30일 개최 확정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학모의 유엔총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0월30일(수) 「신국제질서와 지역통합」이라는 의제로 한국 교회 백주년 기념관(종로5가 소재)에서 「제15차 모의 유엔총회」를 개최할 것을 확정 발표하고, 8월31일(토)까지 각국 대표로서, 연설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의제설정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독일 통일, EC통합, 걸프전쟁 등으로 도래한 신국제 질서 속에서 각국의 대응과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의 재편양상을 각국대표연설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정됐다.

이사람

『동록금 투쟁을 중심으로 제 청구조를 파헤치며 복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이느 학원자주화 투쟁(이하 학자투)과는 달리, 6.3 사건이후 침체된 학내 분위기 쇄신을 위한 2학기 개강과 더불어 시작되는 학자투는 학내 자주권 수호및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투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서울 캠퍼스 하반기 학원 자주화 사업을 새롭게 맡게된 서양어대학 학생회장 이장욱(노어과·4)군은 하반기 학자투 성적을 이렇게 밝힌다.

6.3 사건을 빌미로 학원 자주물결이 역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활성화될 학자투에 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전학생들이 학원 자주화의 주체의식을 갖고 단결된 힘으로 비민주적 장애요소를 척결해야 하며, 간부들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아래 지난학기 학자투 평가를 볼때, 대학당국의 임시방편을 위한 「학자합의 사항」문구의 나열에, 교수·학생·직원의 단결된 힘과 양캠퍼스 연대투쟁 부족으로 인해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고려, 2학기 학자투의 전개방향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군은 『개강을 맞는 학우들이 학원에서 학생주권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학원 자주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주학원 건설을 위한 개강 투쟁 선포식을 시발점으로 1.2차 공청회를 비롯 제적·수배자 과를 중심으로 과별 토론, 교양작업, 소식지 발간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하반기 사업의 구체적 활동을 밝혔다.

앞으로의 학자투가 대학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에 넘어가는 단기 투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 사항을 세워 학원 자주화 완전수호를 위한 주체적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측단 결단이 개강과 동시에 실시되는 하반기 학자투의 주요사안인 1학기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제적철회, 수배해제, 민주적인 학칙개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군은 학자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수동적이고 외존적인 자세를 버리고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려 하며, 눈앞에 보이는 이익문제 해결만이 아닌 학원의 완전한 자주를 위한 투쟁의 대오에 다같이 결집해 나가야 한다며 말을 맺는다다. 〈김형미 기자〉

『주체적 힘과 지혜를 학자투 대오에 모아야 합니다.』

〈2학기 학자투 주체를 맡은 서양어대학 학생회장 이장욱군을 만나〉

외국어 경시대회 열려

본교 장재호, 김혜원 입상

지난 6월 25일(화) 서울캠퍼스 사범대학에서는 「제11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가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제학생 1백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영어 불어 독어 일어 각 과목별로 수필·번역·회화부문으로 나눠 종합 평가했다.

대학교육의 내실화도모와 대학내의 올바른 외국어 교육의 방향제시라는 목적아래 이루어진 이번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영어부문에 최윤정(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4), 불어부문에 장재호(본교 사범대학, 불어교육·4), 독어부문에 박인원(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3), 일어부문에 김혜원(본교 동양어대학 일본어과·4)양이 각각 수상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활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 분		상 환 기 간	상 환 방 법
단 기 학 자 금		대출후 1 년이내	○매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납입
장 기 학자금	85. 8. 1 이전대출과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 년이내	원금 :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 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 3 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5. 8. 1 ~89.12. 21 대출과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 년이내	원금 :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 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 거치기간중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납입
	89. 12. 22 이후대출과	〃	원금 :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 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 •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매3 개월 또는 매6 개월단위로 납입 •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에 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신청서를 취하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장기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서민대중이 힘들게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점을 심분 감안 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학생생활연구소 안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 개 인 상 담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문제(정서장애, 진로문제, 대인관계)에 대하여 상담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 집 단 상 담 : 10명 내외로 구성된 집단원들이 1주에 1~2번 만나 전문가의 도움하에 의사소통 방법, 감정처리법, 표현력등의 훈련을 받아 원만한 인간관계형성 및 자기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 학 상 담 : 유학절차, 외국에서의 생활적응, 학교과와등 유학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 정보를 드립니다.
- 심 리 검 사 :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돕기위해 성격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자아개념검사 등의 심리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해석해 드립니다.
- 자료실운동 : 취업, 대학원, 유학등 진로에 관한 자료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

도움 받을 일
↓
학생생활연구소 방문
↓
시간약속
↓
상담 / 심리검사 / 자료실이용

이용시간

상담

- 심리상담 서울(화5·6, 목6·7교시)
  용인(수2·3·5교시)
- 유학상담 (수 3·4교시)

심리검사

- 적성 및 지능 서울(금 7·8교시)
  용인(화 6·7교시)
- 그외 검사는 함시 이용 가능

또 다른 프로그램은?

- 교 양 강 좌 : 정신건강, 자기개발, 진로모색등과 관련된 특강을 실시합니다.
- 간행물발간 : 「외대소식」지 발간
  대학 생활안내 책자발간
- 심리극공연 : 개인의 내적인 문제를 연극적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보다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편지글 멋진 만남을 기다리며

개강을 했지만 교정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3사건 이후 많은 우리의 선배·후배·친구들이 구속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배의 눈길을 피해 힘든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학우의 한 후배가 쓴 편지글을 싣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잠시 소홀히 했던 이러운 상황의 학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상욱이 형에게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한여름 무더위가 이제는 찬바람에 의해 조금씩 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성동구치소에 다녀온 친구에게서 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해 보인다는 말이 제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형의 구속소식을 일간지 사회면에서 보았을 때「하필이면 형이 먼저…」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6·3사건후 저희 집에 들이닥친 형사들때문에 어머니께서 놀라셨는데, 신문을 보시더니 상욱이 형 걱정을 하셨습니다.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교정에는 간간이 불어대는 바람과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학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랫만의 만남을 기뻐하며 대화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알게된 형과의 만남을 떠올려 봅니다.

입학을 축하한다며 신구대면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처음 만아보는 술잔을 내밀며 그 큰입으로 미소짓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형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날 4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새벽 1시에 끝났죠. 거의 암흑에 가까운 그날의 스케치는 형의 부축속에 첫외박을 기뻐하며 끝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형과의 인연은 신입생수련회에서도 계속이어졌습니다. 형이 사회를 보았던 해방율놀이, 신발주로 유명했던 그 윷놀이는 말이 함정에 빠지면 벌칙이 주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기마전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에 올라타고 주춤거리던 저는 상대편 모학생에게 한방을 먹었죠. 그순간 형의 얼굴이 비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형의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입학해서 가장 친하게 지냈을 형은 저에게 또 다른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상경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형이 연출을 맡아 준비했던 마당극에서 운좋게 형과 함께 하게 되었죠.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매력적이고 넉살좋게 웃는 인상으로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춤을 과 노래를 가르쳐주며 힘들었던 마당극의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저는 대학입학후 소중한 경험들은 모두 형을 통해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신있고 밝은 표정으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에 열심이던 상욱이형. 때로는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갖 입학한 후배의 생일까지도 챙겨주던 형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형이 보이지 않는 교정에서 더욱 생각납니다.

상대학생회실에 들러 형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자신보다는 학교와 후배들 걱정으로 가득찬 형의 편지를 보면서 다시한번 형을 생각합니다. 자꾸만 고개가 숙여집니다. 재판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지루했던 여름장마와 무더위가 물러가고 맑고 푸른 가을하늘과 함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6월3일 그날 이후 줄곧 자신의 몸을 숨기며 줄곧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해야 할 때가 가까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형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직접말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형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신의 안일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느낄수 있었습니다.

형에게 미치진 못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형과의 만남이 또다시 이 교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더 성숙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형을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강을 하면 다소 가라앉은 교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형을 만나게 될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고 용기를 잃지마세요. 짧지만 소중했던 형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좋은 소식 들리기를 가슴깊이 빌어 봅니다.

무더위 끝에 시원해진 밤하늘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후배 준호 드림

노 준 호
〈상경·경제2〉

수필 우리가 간 통일의 길

—91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 활동을 마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조국통일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발길이 닿는 거리거리마다 조국통일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기어이 우리 대열 삼천리 방방곡곡에 통일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겠습니다』

짐결지인 한남대로 향하기전 약간은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굳은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한남대에 도착해 보니 각 지역에서 모여든 통일선봉대 학우들이 천여명을 넘었으며 힘찬 노래와 구호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통일 선봉대는 비핵군축 선봉대와 연방제 선봉대로 나뉘어졌다. 내가 속한 비핵군축 선봉대도 목포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목포에서의 첫가두집회를 성공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해 올해 조국통일 투쟁의 방향과 조직적 과제에 대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드디어 가두로 달려나갔다.

시민들은 처음에 우리를 신기한듯 구경만 하였다. 야속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곧 적려와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도 우리 통일선봉대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통일을 향해 나아갈 우리민족이기에….

어느새 출동한 전경과 대치하면서 우리는 연좌시위로 맞서며 기어서라도 집회장소로 가기 위해 전진하였다. 전경의 방패와 곤봉에 머리가 깨어지고 얼굴이 찢어졌다. 피를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통일노래와 구호. 결국 전경들의 폭력과 저지로 모두 그 자리에 누워「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했다. 눈에선 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닌 전경들과 이런 실정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이 슬펐기 때문이다.

주위에 몰려든 시민들의 걱정어린 눈길과 관심속에서, 학우들이 한두명씩 피를 흘리며 뒷쪽으로 실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또다시 코끝이 찡해 옴을 느꼈다.

무엇이 이리도 통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가? 통일외치를 폭압으로 짓밟는 정권에 분노하며, 그렇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힘들고 숨막히는 이 현실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마침내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로 가는 가두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낼 수 있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오늘 하루의 일정을 평가하고 내일의 투쟁을 준비했다. 점심·저녁을 굶고 밤늦게 빵과 음료수로 허기를 달래며 좋이 상자위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이런 힘든 생활 속에서도 통일선봉대로서의 임무를 옮게 수행해 내기 위한 그칠 줄 모르는 움직임은 목포, 광주, 군산, 이리, 대전, 수원, 성남으로 이어졌다.

그 어느 곳을 가도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러한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의 길을 막을 이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고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잊을 수가 있었다.

마침내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경희대에 진입하여 91범민족대회를 치루어 내던 그날. 비록 북측대표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2만여명이 훨씬넘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망을 함께 나누었다.

지금도 그때의 열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뜨겁게 달아오는 한여름의 아스팔트 위에서 목청껏 외쳤던 구호들이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함께 노래부르고 구호를 외치던 학우들, 그리고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던 시민들을 떠올리며 힘들었다는 생각보다는 호뭇한 기억으로 미소를 머금게 된다.

이제 가을을 맞아 조금씩 높아가는 푸르고 맑은 하늘에 현신적 투쟁을 함께했던 통일선봉대 학우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른다.

심 재 영
〈서학·노어4〉

기다림을 시작하며

명수당 잔디밭에 모여앉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미네르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외대학우들의 힘찬 새학기 출발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기나긴 방학동안 여러분은 무얼 하셨습니까? 방학중에 못나눈 이야기를 다소 서늘해진 초가을밤에 글로 써 보면 어떨까요? 91년 여름과 함께 했던 소중한 경험과 느낌을 담은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원고지 9~12매 정도로 어떤 형식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문화부〉

진퇴양난(進退兩難)

—지난 13일(화) 범민족대회에 참석하려는 4천여명의 학우들이 경찰의 원천봉쇄망을 뚫고 경희대로 진입하는 가운데 당황하는 전투경찰들

〈이재원 기자〉

문화 양달샘

아버지의 나라
—이혜숙의 지음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작가 17인이 쓴 단편소설집이다.

「민중」이라는 말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위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욕탕주인의 이야기인 「남천탕」을 비롯, 단편소설 특유의 긴박감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11편의 소설이 담겨있다. 신인작가의 작품과 공동창작작품 「단전」「겨울 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실천문학사펴냄 값4천원〉

풍물교실
—풍물·춤패「깃발」 엮음

발전경로가 짧고 문화가 덜 돼있는 풍물의 전문화를 위해 쓰여진 풍물 교육을 위한 교과서이다.

풍물에 대한 기본상식에서 시작하여 대학풍물운동의 위상과 조직정비, 노동자풍물패의 올바른 지리매김, 풍물 창작방법론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민맥펴냄 값4천원〉

옹달샘은 샘이다
—이현주 지음

현대 자본주의 세태를 풍자한 동화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그동안 지은이가 신문·잡지에 발표했던 글을 모아 엮은 이 책에서는 독재정권과 악덕기업주에 의해 억압받는 민중의 삶을 풍자하고 있다. 지나쳐버리기 쉬운 생활주변의 일상에서 얻은 소재는 흥미와 함께 신선한 깨달음을 준다.

〈참세상펴냄 값3천원〉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회 지음

기정·사회·정치·경제·이데올로기등 생활전반에 걸쳐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문제 제반에 대해 서술한 학술서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위치와 여성문제를 인식하게 하며 무엇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이 책은 외면하기 쉬운 여성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동녘펴냄 값5천5백원〉

소설창작교실
—전상국 지음

소설을 써보고 싶은 창작욕구를 느끼면서도 막상 창작의 실제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겪는 「작가지망생」을 위한 지침서이다. 소설의 목적, 소설쓰기의 방법, 작가의 자세등 소설이해에서 작품창작까지를 상세하게 다뤘다. 소설에 대한 이론적 이해보다 상상력, 통찰력, 장인의식을 중시하였으며, 서술이 간단·명료하게 돼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문학사상펴냄 값4천6백원〉

그대여, 다시 만날 때까지
—정도상 지음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일면을 보여 주는 장편소설이다.

조국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학도들의 투쟁과 좌절의 삶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때론 희의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오늘의 청년학도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풀빛펴냄 값4천2백원〉

지금 수술중
—극단「현장」 주최

극단「현장」은 8월23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예술극장한마당에서 「지금 수술중」을 공연한다.

환자의 권익을 되로한 채 영리성만을 쫓는 병원의 운영체계에 대항하는 병원 노조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이 연극은 의료보험제도의 부당성과 보건의료 정책 확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입장료:4천원
▲연락및 문의처:극단「현장」(743—1266)

操縱訓練生 모집

당신도 2년후에는 대한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창공의 주인공—파일럿트/그간 조종경력자나 특수 교육기관 출신자에게만 개방되었던 그 문을 당신에게 활짝 열어드립니다. 일반 대졸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하게 민항공 조종사를 양성 하고 있는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세계의 하늘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募集人員 및 應試資格

모집인원	응 시 자 격
60~70명	•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단, 기가톤조종사 면장소지자는 1961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 신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1992년 2월이전 졸업예정자 (전공제한 없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건강한 자로서 나안시력 1.0 이상인 자. (항공법 시행규칙 제71조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조종사 면장소지자는 우대함

敎育期間 및 處遇

- 교육기간 : 2년
- 처 우 : 대졸사원에 준하는 처우 (교육이수후 소정의 자격취득시 대한항공 조종사 요원으로 임사)

提出書類

-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 1부
-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銓衡方法

- 필기시험

과 목	일 시	장 소
영 어 일반지식 • 기초수학 • 기초물리 • 일반상식	9월8일(일) 09:00~11:30	이 화 여 고

- 추후 전형절차 : 직성면접→신체검사→비행적성 검사시험→면접
※ 추후 전형 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

應試願書 交付 및 接受

- 기 간 : 1991년 8월26일~9월7일(공휴일 제외)
- 교부처 : 서소문 KAL 빌딩 및 대한항공 국내 전 지점 영업소
- 접수처 : 서소문 KAL 빌딩 및 부산, 제주지점

其 他

- 우편접수는 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번호 100-608, 서울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인사부)
- 국가보훈대상자 :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인사부 또는 접수처로 문의 바람

TEL. : 서울 751-7334/6 부산 461-7212 제주 50-8211

금회모집 이후에는 年中常時로 원서교부 및 접수할 예정이며 채용전형은 수시로 실시함.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